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教學活動研究*

高昌錫 · 梁鎮健

目 次

緒 言	Ⅳ. 流配의 旅程과 그 實況
I. 勉菴 崔益鉉의 生涯	V.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II. 大院君의 改革政治	結 論
III. 崔益鉉의 彈劾上疏	

緒 言

제주도는 朝鮮王朝 약 5백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귀양살이 했던 곳이다. 李健이 <濟州風土記>에서 '耽羅는 通國의 罪地요, 流竄은 邦家의 重典이라'한 것은 "流刑島"로서의 제주도의 사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李健은 1628년 (仁祖 6) 그의 父親 仁城君이 光海君의 復位謀議에 가담하였다는 죄명으로 珍島에 유배되어 賜死될 때,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유배되어 8년간 귀양살이했던 仁城君의 세째 아들이다.

이렇듯 제주도는 슬한 인사가 謫居생활을 했던 곳이며, 따라서 이들이 제주

* 이 논문은 1987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도에 미친 영향도 대단하였다. 학문과 知德을 겸비한 정치가·학자들이 이곳에 많이 유배됨으로써 지방인 자제들이 그들에게 사사하여 그들의 학문과 사상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英祖 때의 任徵夏·趙觀彬, 仁祖 때의 趙貞喆, 憲宗 때의 金正喜, 高宗 때의 崔益鉉·金允植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중에서도 勉庵 崔益鉉은 朝鮮朝 말의 高宗 때 大院君 彈劾上疏가 계기가 되어 제주도에 圜籬安置되었다. 제주에 유배된 崔益鉉은 謫所를 濟州城內에 있는 尹奎煥의 집으로 정하여, 독서와 산수를 즐기며 지방 선비들과 교류하는 한편 敎學 활동에도 전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崔益鉉의 제주도에 끼친 敎學的 영향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지금까지 勉庵 崔益鉉에 대한 연구는 주로 韓末 衛正斥邪論과 관련하여 행하여졌다. 즉 衛正斥邪思想은 보수적이지만 외세의 침략에 대한 주체적 저항 사상으로 근대 민족주의의 한 類型으로 보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이에 반해 衛正斥邪思想의 대외적인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儒敎的 敎祖性과 事大意識에 기반을 둔 봉건적 보수주의로서 역사 발전을 저해하였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연구 동향을 참조하면서 勉庵 崔益鉉이 제주도 유배기간 동안에 행한 敎學 활동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에서 崔益鉉의 생애를 살피고, 다음으로 II·III·IV에서는 大院君의 개혁정치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反大院君的 기운의 조성, 崔益鉉의 大院君 탄핵 상소의 내용과 그에 대한 朝野의 반응, 崔益鉉의 제주 유배의 旅程과 圜籬安置 이후의 동정 등을 살피며, 마지막으로 V에서는 제주 유배기간 동안의 그의 교학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집필은 高昌錫이 I·II·III·IV를, 梁鎭健이 V를 각각 담당하였다.

I. 勉菴 崔益鉉의 生涯

高 昌 錫

勉菴 崔益鉉은 1833년(純祖 33) 12월 5일 京畿道 抱川縣 內北面 嘉苴里 자택에서 아버지 芝軒公 崔岱와 어머니 慶州 李氏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골격이 비범하고 眼光이 별빛 같은 虎頭燕頤의 상으로 부모들은 그를 몹시 사랑하여 [奇愛] 兒名을 奇男이라 하였다. 勉菴은 그의 號이며, 諱는 益鉉, 字는 贊謙이며, 貫鄉은 慶州이다. 그는 바로 신라 말 당나라 신라인 實貢諸子 58인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고 漢文學을 본격적으로 개척해서 東國文宗으로 칭송되는 孤雲 崔致遠의 후손이다.

비로소 6세 때부터 그는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外傳로는 9세 때 처음으로 金琦鉉에게 잠시 동안 글을 배웠으나, 본격적인 학문 수업은 그의 나이 14세 때 華西 李恒老에게 사사하면서부터이다. 그는 이때 《擊蒙要訣》·《大學》·《論語》 등을 외었으며, 勉菴이라는 그의 호도 華西가 써준 것이다. 이 무렵 華西의 문하로는 李堉·李堉·任圭直·李寅龜·金平默·朴慶壽·柳重教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勉菴을 첫째로 꼽았다. 그는 계속해서 槩溪에 머물면서 《朱書》·《尙書》를 읽고 작문법을 배웠으며, 특히 18세 때에는 華西를 모시고 雪嶽山을 유람하였는데, 노중에서 五言詩를 짓기도 하였다.¹⁾ 1852년 20세에는 《周易》을 읽었으며, 그 해 10월에는 韓必裕의 딸 淸州韓氏를 아내로 맞이한다.

1) 窮山秋已老 天潤淨雲陰 海嶽牽人意 農頭度石林(《勉菴先生文集》附錄卷之一)

그러던 그는 1854년 22세 때에 同腹兄 錦西公이 從伯父 僉樞公의 後嗣로 出系하므로 홀로 양친 부모를 모셔야 했지만 가난하여 봉양할 도리가 없었으므로 祿仕할 계획을 한다. 이듬해 그가 23세 되던 2월 春到記에서 明經科에 급제함으로써 權知承文院 副正字에 付職되었다. 1856년 10월에는 成均館 典籍에 임명되며, 1857년 11월에는 順康園 守奉官에 차임되고, 27세 되던 1861년 8월에는 司憲府 持平, 같은 해 12월에는 司諫院 正言, 1860년 6월에는 吏曹正郎, 1862년 10월에는 新昌縣監에 임명되는 등 중앙의 淸職과 지방의 外職을 역임하였고, 특히 外職에 나가있을 때에는 강직함과 은혜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 이 후에도 1864년 2월에는 또 다시 典籍에, 그리고 그 해 4월에는 禮曹佐郎에 임명되었으며, 1865년 1월에는 成均館 直講에 임명되어 《國朝總略》을 교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1866년 4월에는 司憲府 持平에 임명되었으며, 그 해 5월 6일에는 母夫人 李氏의 상을 당한다. 勉菴은 1868년(高宗 5) 母夫人의 상을 벗자 9월에 司憲府 掌令에 임명되었으나 이때 곧 상소 사직하였다. 이 당시 大院君은 내정의 혁신을 단행하면서 정부의 고관들을 크게 경질하고 書院을 철폐하며 景福宮을 중수하고 稅制와 均制를 개혁함으로써, 특히 京鄕의 선비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 상소에서 時弊四條를 논하고 있는 바, 첫째 토목 역사를 정지할 것, 둘째 聚斂하는 정사를 그만 둘 것, 셋째 當百錢을 혁파할 것, 넷째 四大門稅를 금지할 것 등이 그 주요 골자로서 이를 통해 그의 이름은 나라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이 상소로 인하여 勉菴은 해임되는 가벼운 문책을 당하는 데 그쳤지만 이 상소는 그 당시 서슬이 시퍼런 대원군을 탄핵하는 내용의 것인 데서 오는 정치적인 중요성과 아울러 이것이 崔益鉉으로서는 재야의 유림을 대표하여 국가정책에 강력히 발언하여 이를 실천시키게 하는 정치활동의 시발이었다는 점에서 크게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²⁾

이로부터 그는 막혀 있던 언론을 열게 하였다 하여 칭송이 자자했고, 그가 36세 되던 1868년 10월에는 敦寧府 都正에 임명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음으로

2) 白基琬, “時代에 앞장선 투쟁의 巨人 崔益鉉”, 《近代의 인물 I》, 大衆書館, 1981, p 336.

하여 유림의 신망이 더해갔으며, 2년 뒤인 1870년 6월에는 承政院 同副承旨로 각각 임명되었으나 얼마 안 가서 遞職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1872년 6월에는 또 다시 敦寧府 都正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이듬해 10월에는 同副承旨로 임명되었으나 대원군의 퇴출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며 시작하였다.

이에 조정 안에서는 崔益鉉의 뜻과 맞지 않는 대원군 쪽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사가 옛법을 변경했고 인륜이 없어졌다[政變舊章彝倫敎喪]'는 8자를 가지고 죄에 얹어넣으려 하였다. 이들 중에는 原任大臣 洪淳穆, 時任大臣 姜洵·韓啓源 등이 聯名劄子로 탄핵했고, 이어서 육조의 장관으로는 호조판서 金世均, 예조판서 趙性教, 공조판서 李寅應, 병조판서 徐相鼎, 전 형조판서 徐堂輔 등이, 兩司에서는 대사헌 洪鍾雲, 대사간 朴弘壽, 사간 吳慶履, 정언 沈東獻, 장령 金東軾·金復性, 지평 李麟奎, 집의 李在淳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온 조정이 들고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왕은 勉菴의 상소를 嘉納하고 그를 戶曹參判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聯名상소한 육조장관에게는 越俸 3등을 하고, 승지·옥당·양사에게는 파직을, 형조참의 安驥泳, 전 정언 許元軾 등은 찬배를 시켰다. 같은 해 11월 崔益鉉은 또 상소로서 시작하는 뜻을 밝히면서 萬東廟 및 書院의 철폐, 韓孝能·陸東善 李玄逸 등 복인·소론·남인 정객의 伸雪을 청하고 또 大木과 願納錢의 계속 등이 바로 나라를 그르치는 구체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나아가 왕의 친정을 주장함과 아울러서 왕실종친의 政事 개입을 단호히 배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상소로 대원군은 퇴출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유림의 영향력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대원군의 극적인 하야가 이루어지지만 대원군에게 가까운 대신 이하 전 관료가 그들의 진퇴를 걸고 崔益鉉이 皇廟를 復設하는 문제와 宗廟를 이간하였다 하여 그를 엄히 벌할 것을 주장하며 上章하였다. 이때에 상소한 사람으로는 宗正卿 李最應, 璿波사람 李時夏, 副司果 趙愿祖, 副護軍 洪萬燮, 前持平 奇觀鉉 등이 있었다. 이에 왕도 할 수 없이 1873년 11월 10일 崔益鉉을 濟州牧에 團籬安置하도록 명을 내림과 아울러, 勉菴의 엄벌을 주장하던 대신들에 대해서도 파면처분을 내렸다.

유배의 왕명을 받은 勉菴은 동일 南間에서 西間으로 옮겨졌다가 밤 삼경에 金吾門을 나왔고 13일에는 금부낭청 李元儀의 압송하에 밤을 새워 한강을 건넜다. 梨津에 도착한 것이 28일이며, 바람을 기다리다가 12월 3일 배에 올라 노를 저어 70리를 가서 所安島에 도착하고, 다음날 12월 4일 丑時에 배를 띄워 巳時에 제주 朝天浦에 도착했다. 5일에는 城內로 들어가서 尹奇福의 집에 관소를 정하였는데 금부도사 및 제주목사 李宓熙가 와서 圍籬를 감시하고 供傭 등물은 本官에서 대어 주었다. 이때 勉菴은 출입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매일 《朱子書》를 외고, 또 校宮에 간직된 《尤菴集》 1질을 빌어 潛心玩索하며 귀양살이의 괴로움을 잊었다. 이 당시 제주도내의 문사로 安達三·金養正·姜基頊·金龍徵·金堧·金致塔·金養洙 같은 이들이 왕래하며 종유하였고, 호서사람 孟文浩·崔榮煥, 호남사람 崔勝鉉·朴海量·金孝煥·金衡培·安彥煥·李弼世가 모두 바다를 건너와서 뵈었다. 특히 勉菴은 제주에 있는 동안 유림들을 중심으로 항일정신을 고취하였으니, 후일 勉菴이 호남에서 舉義하기 前年인 1905년 제주 유생 李膺鎬 외 11명의 集義契 抗日鬪爭直言之를 있게 하였다.³⁾ 이 무렵 武稷 金魯壽, 경기 유생 申樾, 호서 유생 金興秀, 영남 유생 成爾源, 호남 유생 朴海昇 등이 소를 올려 崔益鉉을 伸救하였다. 그러던 중 43세 되던 1875년(高宗 12) 3월 16일 解配關文이 들어오니 判官 李時鉉이 공복을 갖추어 입고 圍籬를 철거하였다. 유배에서 풀려난 3월 25일에는 굴림서원 옛터에 가서 祭文을 지어 五賢인 冲菴 金淨, 圭菴, 宋麟壽, 淸陰 金尙憲, 桐溪 鄭蘊, 尤菴 宋時烈에게 제사하였으며, 3월 27일에는 한라산에 올라 白鹿潭과 千佛巖 등의 명승을 두루 구경하였다. 그가 제주를 떠나기는 4월 12일로 어둑어둑할 때 別刀鎭에서 배를 띄워 밤낮 이틀을 지나 梨津에 내렸는데, 문인 金養正과 館人 尹奇福이 배행하였다. 이로써 시대의 양심을 대변 內政에 관한 그의 투쟁의 제1단계 삶이 끝나고 제2단계의 삶으로 접어든다.

이듬해 1876년(高宗 13) 1월 강화도에서 申樾과 倭使 黑田淸隆 사이에 丙子修好條約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勉菴은 1월 22일 도끼를 가지

3) 梁重海, "義兵精神과 韓民族의 主體性", 《韓國思想의 本質과 栗谷學》, 勉菴 崔益鉉先生 生誕 150周 紀念 栗谷思想研究院, 1984, p. 181.

고 광화문 밖에 나아가 엮드려 政院에 소를 올리고 노숙하며 밤을 새웠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목숨을 걸고 왕께 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斥和疏의 내용은 병자수호조약의 부당성을 크게 다섯 가지 점에서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의 방비가 없는 약점 때문에 강화를 맺는다면 일본의 끝없는 욕심을 충족할 수 없어 결국은 멸망한다는 점, 둘째는 일본의 사치성 수공품과 우리 백성의 생명이 달린 땅에서 생산되는 物貨를 교역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풍속을 해쳐 반드시 멸망한다는 점, 셋째는 왜인은 洋賊이므로 邪學과 天主의 초상이 전해져서 유교적 윤리가 병들게 되어 멸망한다는 점, 넷째 강화가 이루어진 뒤 저들의 왕래와 거주는 재물과 부녀자들의 약탈을 초래하여 사람이 도리가 없어지므로 멸망한다는 점, 다섯째 丙子胡亂 때의 淸人은 중국의 霸主를 모방해서 그런 대로 仁義에 근사한 점도 있었으나 왜적은 재물과 여색만을 아는 금수이므로 결국 멸망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으며, 특히 교역품의 경우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수공품이었고 우리 나라에서 나가는 것은 쌀 등의 농산품과 금·은 등의 지하자원인 것을 볼 때⁴⁾ 유학자로서의 그 특징을 강력하게 지녔을 뿐만 아니라 문호개방에 따르는 외세의 침입과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을 깊이 있게 통찰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持斧伏關의 상소에 時任·原任大臣 李裕元·金炳學·洪淳穆·朴珪壽·李最應·金炳國, 승지 徐正淳·李容元, 兩司 李在敬·李晚燕·愼錫九·吳麟泳, 玉堂 李載德·金九鉉·金晚植·金德均·趙臣熙·金喆熙·尹昇求·鄭寅性 등이 함께 聯名劄子를 올려 죄 주기를 청한다. 또한 왕도 譚路 옆에 엮드려 있으니 매우 해괴하다 하고 명하여 잡아 가두게 한 후 1월 24일 엄중한 教旨를 내려 黑山島에 圍籬安置하라는 명을 내린다. 금부도사 韓鎮泰가 길을 재촉하여 2월 10일에는 多慶津에 도착하고, 16일에는 小黑山에 도착 文寅周의 집에 관소를 정하였다. 그는 흑산도에서의 유배생활 동안 《朱書》를 읽거나 흑산의 절정에 올라 鐵馬 및 硯井의 고적을 살피기도 하였으며, 飛禽島의 김

4) 《日省錄》, 高宗十三年一月二十三日, 崔益鉉疏.

5) 黃炫, 《梅泉野錄》, 李章熙譯, 《韓國名賢大全集》, 1978, p. 70

효자 3대의 효행에 관한 〈金孝子三世傳〉을 짓기도 하였다. 이러한 勉菴에게 그가 47세 되던 1879년 2월 8일 고향으로 放逐하라는 명이 내려져 그의 두번째의 유배생활도 끝나게 된다. 고향에 돌아온 勉菴은 그 후 칩거의 생활을 보내면서 학문과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인다.

고향에 돌아온 이듬해인 1880년 수신사 金弘集이 일본에서 가지고 온 《私擬朝鮮策略》이라는 청나라 외교관 黃遵憲의 저서가 당시 한국 정계에 파문을 일으키고⁶⁾ 開化僧 李東仁이 활동하며 일본에 이어 중국·미국·영국과 국교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온 유림이 들고 일어나 衛正斥邪의 萬人疏를 올리게 되고⁷⁾ 전 국민적 저항운동을 일으키니 勉菴이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 1882년 6월에는 壬午軍亂이 일어났으나 병으로 奔問하지 못하며, 1884년 여름에는 조정에서 의복을 變制하는 명이 내림과 아울러 같은 해 10월에 甲申政變이 일어나자 謁문 밖에 가서 奔問하였으나 대궐문을 파수하던 왜군에 입궐을 제지당하고 얼마 뒤에 돌아왔다. 1887년 5월에는 아버지 芝軒公의 상을 당하고, 삼년상을 마친 1890년 여름에는 맏아들 永祚와 함께 《華西先生文集》 전집을 정서하며, 같은 해 겨울에는 芝軒公 遺事를 찬술하였다. 그러던 중 1894년 6월에는 甲午更張이 일어나자 도성 밖에서 奔問하였으나 궁중이 왜군에 포위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때 甲午更張으로 대원군은 재등장하게 되는데 丙子年 斥和疏 이후 斥洋斥倭의 勉菴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그를 工務衙門大臣으로 임명하나 배사하였다.

1895년(高宗 32) 6월 勉菴은 甲申逋賊 朴泳孝를 치고 黑衣短袖의 의복 변혁이 옳지 못함을 주장하며 의복제도의 복구를 청하였다. 동년 8월 20일에는 乙未事變으로 閔妃가 시해되고, 11월 16일 밤에는 金弘集·兪吉瀟 등이 주상을 위협하여 머리를 깎게 하고, 이어서 궁중에 강제로 머리 깎는 일을 대대적으

6) 黃遵憲은 淸國 사람으로 駐日淸國公使 何如章을 따라 參贊官으로 일본에 있었다. 1880年(高宗 17)에 수신사 金弘集이 일본에 갔을 때 서로 국제관계의 의견을 교환하고, 자기 주장을 적은 《私擬朝鮮策略》을 기증했는데 김홍집의 복명과 함께 그 책을 왕에게 올렸다.

7) 윤병식, 《의병과 독립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p. 31

로 행하였다. 또한 내무대신 俞吉潁은 勉菴을 고향으로부터 서울로 압송하여 삭발을 강요하나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 무렵 제천의 柳麟錫, 춘천의 李昭應, 홍주의 金福漢·洪健·李輿 등을 중심으로 각지의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켜 봉기하매 이틈을 타서 李範晉 등의 親露派는 俄館播遷으로 정권을 잡는다. 이에 1896년 1월 7일 왕은 勉菴을 各府郡 宣諭大員에 차임하여 의병을 진압하도록 하였으나 국모시해의 범인에 대한 처벌, 단발령의 철폐 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의병들을 선유할 자신이 없다고 사양하였다. 또한 왕은 1898년 9월에는 議政府 贊政, 10월에는 宮內府 特進官으로 임명하였으나 상소하여 사직하고 겸하여 時務12條를 전달하였다.⁸⁾ 그 후 勉菴은 여러 곳을 여행하는데 1899년 4월에는 白雲寺를 유람하고 다시 춘천 谷雲에 가서 九曲 등의 여러 승경을 구경하며, 1900년 4월에는 충청도 定山으로 집을 옮기고 貫鄉인 경주 등을 유람하였다.

1904년 일제가 露日戰爭을 일으키고 아울러 그 해 2월 23일에는 韓日議政書가 체결되고, 8월에는 제1차 韓日協約 등이 강요되자 왕은 勉菴에게 자문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에 勉菴은 인재의 擇用, 일본 배척, 가림주구의 근절, 차관 금지, 외국에의 의타성 근절, 매국의 역도를 처참할 것 등을 간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曲盡한 자문도 아랑곳 없이 1905년 乙巳條約이 체결되자 勉菴은 八道士民에게 포고문을 보내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결기할 것을 호소한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충남 魯城의 孔子廟에서 유림대회를 열고, 다음 해 1월 22일 경기도 振威에서 크게 모인 다음 왕궁으로 나아가 直疏할 것을 결의한다.

8) 時務 12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經筵을 열어 輔導할 것. ② 음식을 삼가하여 聖體를 보호할 것. ③ 사사로이 모시는 이를 물리치어 宮禁을 엄숙히 할 것. ④ 쓰고 버림을 살피어 조정을 바르게 할 것. ⑤ 백관을 감독하여 실지의 일을 힘쓰게 할 것. ⑥ 법률을 바로 잡아 기강을 세울 것. ⑦ 民黨(萬民共同會)을 혁파하여 변란의 계계를 막을 것. ⑧ 起復를 금하여 풍속을 바로 잡을 것. ⑨ 헛 비용을 절약하여 국가의 용도가 여이도록 할 것. ⑩ 군법을 정돈하여 武備를 닦도록 할 것. ⑪ 원수와 역적을 討罪 하여 大義를 밝힐 것. ⑫ 中華와 夷狄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큰 한계를 정할 것.

그러나 왜병의 저지로 振威 집회가 좌절되는데 이에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여 판서 李容元, 판서 金鶴鎭, 관찰 李道宰, 참판 李聖烈, 참판 李南珪, 倭宇 郭鍾錫, 良齋 田愚에게 편지를 보내어 국난을 구할 것을 권하였으나 모두 호응하지 않았다. 勉菴은 이에 굽히지 않고 1906년(高宗 43) 호남 泰仁의 武城書院에서 의병 봉기를 선언하니 이때 모인 사람들은 林炳瓚·金箕述·柳種奎·金在龜·姜鍾會·李東柱·李容吉·孫鍾弓·鄭時海·林相淳·林炳仁·宋允性·林炳大·李道淳·崔鍾達·申仁求 등 불과 80여 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왕께 이 사실을 상소하고 檄文을 여러 郡에 보내는가 하면 일본 정부에도 글을 부쳐서 신의를 저버린 16가지 죄를 따지며⁹⁾ 일본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 해 윤사월 20일 전주관찰사 韓鐵昌과 순창군수 李建鎔이 왜병을 거느리고 와 의병을 습격하니 의병은 마침내 무너지고 鄭時海가 전사하였다. 이에 면암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고 왜의 사령부에 구금되었다가 그 해 7월 8일에는 林炳瓚 등과 함께 對馬島 巖原에 압송되어 衛戍營 경비대 안에 구금되었다.¹⁰⁾

대마도에서도 일제는 또 다시 단발을 강요하나 勉菴은 단식으로써 대항하였

9) 16가지 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884년 竹添進一郎의 난에 우리 황제를 강제로 읍기고 우리의 재상을 살육한 것.
 - ② 1894년 大島圭介의 난에 우리의 국권을 불태워 약탈하고 典章文物을 무너뜨린 것.
 - ③ 1895년 三浦梧樓의 변에 우리의 왕후를 시해한 것.
 - ④ 林權助와 長谷川好道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협박하고 겁탈한 것.
 - ⑤ 軍事를 핑계로 토지를 강점하고, 인민을 침해하고, 두덤을 파고, 가옥을 헐어 버린 것.
 - ⑥ 철도와 토지를 강점하고 軍律을 전시처럼 시행하는 것.
 - ⑦ 議政書를 강제로 만들어 우리의 국권을 빼앗은 것.
 - ⑧ 상소한 사대부와 유생들을 탄압하는 것.
 - ⑨ 一進會를 만들게 한 것.
 - ⑩ 役夫를 강제로 모집하여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거나 죽이는 것.
 - ⑪ 電報司·郵遞司의 통신기관을 강탈한 것.
 - ⑫ 각 部에 고문관을 두어 우리를 탄압하는 것.
 - ⑬ 차관을 억지로 쓰게 하여 재정을 파탄시키는 것.
 - ⑭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국권을 빼앗은 것.
 - ⑮ 외교의 감독의 명을 연 관리들이 횡포하는 것.
 - ⑯ 移民條例를 만든 것.
- 10) 이때 함께 의거했던 사람들에게는 각각 다음과 같이 선고가 내려졌는데, 勉菴은 대마도에 監禁 3년, 林炳瓚은 2년, 高石鎭·崔濟學은 본署에서 6개월 구류, 金箕述·文達煥·梁在海·林頭周·李容吉·趙愚植·趙泳喜·羅基德·林海瑯은 곤장 1백대로 放逐하는 것이었다.

다. 그는 이때 林炳瓚을 통해 遺疏를 남겼으니 왕으로 하여금 오직 의뢰심을 버리고 자립정신을 굳힐 것과 일본 역시 곧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자기는 한톨의 쌀, 한 모금의 물이 모두 적의 공급에 의한 것이기에 단식을 결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연과 아울러 역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마침내 수일 동안의 단식을 계속하던 勉菴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니 그것이 1906년 11월 17일 오전 寅時로 그의 나이 74세 때 대마도 감방에서였다. 이 후 정부에서는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重章을 수여하였다.¹¹⁾

이처럼 勉菴은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면서 외세에 대한 저항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인물이었다.

II. 大院君의 改革政治

勉菴 崔益鉉(1833~1906)이 濟州島에 유배된 것은 高宗(1864~1907) 10년(1873) 12월초의 일이다. 興宣大院君(1820~1898, 이하 大院君이라 칭함)을 탄핵하는 내용의 疏狀을 올린 것이 그의 제주 유배의 동기였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大院君은 哲宗(1850~1863)이 薨去한 후, 高宗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부터 권좌에 올라 약 10년간 이른바 大院君 執政時代(1864~1873)를 현출하였다. 그 기간 동안 大院君은 王室外戚의 勢道政治로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고 絶對王政의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해 前代未聞의 과단한 정치를 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과단성 있는 革新政治는 한편으로는 反大院君의 기운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급기야는 崔益鉉의 彈劾上疏를 계기로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反大院君의 기운을 조성케 한 大院君의 내정개혁을 우선 살펴보고, 다음으로 崔益鉉의 탄핵 상소의 내용과 그에 대한 朝野의 반응을,

11) 《韓國人名大辭典》, 新丘文化社, 1983, p. 957.

그리고 崔益鉉의 제주 유배의 旅程과 園籬安置 이후의 동정을 一瞥해 보고자 한다.

大院君은 우선 왕실 외척이 독점하고 있던 정부요직의 인사 쇄신에 착수했다. 이것은 당시 집권하고 있던 安東金氏의 외척 세력을 政權에서 몰아내고 南·北·老·少의 四色黨派를 골고루 등용함으로써 國王의 對官僚支配權을 강화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정치적 세력을 부식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高宗 元年 4월에 領議政 金左根의 辭職을 筆頭로 領敦寧府事 金興根이 稱病, 사직하였고, 金左根의 아들 金煩冀는 判書에서 廣州留守로 좌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安東金氏의 원로들에게 아부, 추종하여 우익을 이루었던 判書 沈宜冕과 그 아들 沈履澤이 御史의 탄핵을 받아 削奪官職되어 유배당하였고, 左議政에까지 올랐던 李裕元도 水原留守로 좌천되었으며, 이에 대신하여 趙大妃系의 趙斗淳이 領議政에, 南人系의 柳厚祚·韓啓源이 각각 右議政에, 北人系의 任百經·姜滄가 右·左議政, 安東金氏를 대표한 金炳學이 左議政에 전후하여 각각 기용되었다.¹²⁾ 또 지방적인 차별이나 班常·貴賤을 불문하고 기량이 있는 인재들을 適材適所에 임용, 배치하여 자신의 심복으로 삼았다.¹³⁾

그리고 1865년(高宗 2) 3월과 5월 에는 大王大妃(趙大妃)의 敕命으로 文·武 兩班의 권한과 기강을 분리 확립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壬辰倭亂 이후 온갖 政務를 총괄해 온 備邊司를 폐지하고 議政府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한편, 建國 초에 있었던 三軍府를 다시 설치하여 정치, 군사의 兩權을 분립시켰다.¹⁴⁾ 따라서 이는 명령 체계의 단일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였으며 한편으로는 朝鮮王朝 開創期의 통치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同年 윤5월부터 纂集所를 설치하여 《大典會通》·《六典修例》·《五禮便考》·《三班禮式》 등을 차례로 편찬, 간행한 것은 왕권의 확립과 아울러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大院君의 기본 정책은 景福宮의 중건 사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

12) 李瑄根, 《韓國史》, 最近世篇, 乙酉文化社, 1961, pp. 165~166.

13) 同上書, pp. 168~171.

14) 《承政院日記》, 高宗 2年 3月 28日, 同年 5月 26日條.

타났다. 경복궁은 壬辰倭亂 때에 불탄 이후 여러 차례의 중건 논의가 있었으나 국가 재정의 곤궁으로 이를 실현치 못했었다.¹⁵⁾ 따라서 경복궁의 중건은 專制王權을 伸張하고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大院君은 국가 재정과 民力の 困乏을 들어 慎重論 또는 反對論을 펴는 大臣들이 없지 않았으나, 단호히 이를 물리치고 1865년 4월 2일 大王大妃의 傳敎로 營建都監을 설치하고 동월 13일에 그 중건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는 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 관리와 왕실 종친들에게는 捐補金을 내게하고, 士庶人들에게는 자진헌납의 형식으로 願納錢을 받았는데, 多額者에게는 벼슬을 주거나 포상한다는 것이었다.¹⁶⁾ 그리고 부역 동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 民怨을 크게 사지 않으면서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경복궁 중건 공사는 백성들도 어느 정도 호응하게 되었으며, 大院君도 부역에 임하고 있는 백성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기 위해 舞童隊·農樂隊 혹은 남사당패 등을 동원하여 이들을 격려하였다.¹⁷⁾ 이리하여 경복궁은 소실된지 3백여 년만인 1868년(高宗 5) 7월 다시 중건되었으며, 계속하여 宗廟·宗親府·六曹 이하 각 官署·都城 및 北漢山城의 修築도 차례로 끝내어 5백년 古都가 실로 大院君 때에 이르러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반면 경복궁의 중건 공사는 적지않은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것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1866년 3월 원인 불명의 화재로 木材場에 쌓아 둔 巨木들이 燒盡되어 막대한 물력의 손실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大院君은 願納錢의 강제 징수, 結頭錢이라는 토지부가세의 課徵, 都城을 출입하는 자에게 통행세(門稅)를 징수하였는가 하면, 當百錢이라는 惡貨를 남발하여 사회,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시킨 것이다.¹⁸⁾ 이에 물가가 폭등하여 국민생활을 크게 압박하자 大院君은 1868년 11월에 가서 부득이 當百錢의 사용을 중단하고, 淸錢을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財界는 소강상태를 이루었으나, 願納

15) 《朝鮮王朝實錄》，純祖 28年 9月 15日條，同書，高宗 2年 4月 3日條。

16) 《承政院日記》，高宗 2年 4月 2日~5日條。

17) 李瑄根，前掲書，pp. 190~191

18) 《承政院日記》，高宗 4年 2月 30日條。

錢이 怨納錢이 되고 結頭錢이 腎囊錢이라고 부르게 될 정도로 공사 후반기에 와서는 民怨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¹⁹⁾

大院君은 專制王權의 확립이라는 大命題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온갖 弊政의 개혁에도 매우 과감하였다. 書院의 撤弊가 그 한 예이다.

당시 書院은 막대한 농장과 노비를 소유하고 免稅·免役의 특권을 누리며 국가 재정을 침식하고 양민을 수탈하는 존재로 화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존재로서 사회 기강을 흐려놓고 있었다. 더우기 四色黨派 정치가 전개된 이후로는 黨爭의 소굴이 되었을 뿐 아니라 免稅·免役의 특권을 악용하여 避役의 소굴로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서원의 존재를 용인하고서는 집권적 지배 체제를 강화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大院君은 1864년(高宗 원년) 7월 27일 大王大妃의 傳敎형식을 빌어 議政府로 하여금 書院과 鄉賢祠의 존폐 문제를 협의케 하고 동년 8월 17일에는 각 지방으로 하여금 그 비행과 불법을 낱낱히 적발케 하는 동시에 서원과 향현사의 私設 및 濫設을 엄금하라고 지시했다.²⁰⁾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듬해 3월 29일에는 大王大妃의 傳敎로 書院 중의 대표격인 萬東廟를 철폐케 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景福宮의 중건 공사가 진행되고 丙寅洋擾까지 치르게 되어 서원의 전면적인 철폐는 지연되어 오다가 1871년 3월 9일, 드디어 大院君은 전국 8道에 諭을 내려 서원을 철폐하라고 하였다.

즉 先儒 1인에 한하여 2 개 이상 설립된 서원이나 향현사는 비록 賜額書院이라 하더라도 이를 철폐할 것이며, 先儒라 하더라도 文廟에 제향된 사람에 한해 1 개소의 서원 혹은 향현사를 인정한다는 것이었다.²¹⁾ 더우기 大院君의 명령을 위반하는 郡縣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守令을 엄벌키로 되어 있으므로 有名無實하던 지난날의 명령과는 달리 서원과 향현사가 차례로 헐리게 되었다.

이에 서원에 근거하여 향촌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전국의 유생들은 즉각적

19) 《梅泉野錄》，p. 4.

20) 《承政院日記》高宗 元年 7月 27日條 및 8月 17日條.

21) 上揭書 高宗 8年 3月 9日條

인 반발을 나타냈으나, 大院君은 백성을 해치는 자는 孔子가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내가 이를 용서치 않는다는 신념으로 유생들의 항거를 물리치고 전국 670여 개의 서원 중 47개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시키고 말았다.²²⁾

여기서 서원의 폐단은 일소되고 약화된 왕권이 다시 강화되었음을 물론, 이러한 大院君의 과단성 있는 정책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의 철폐는 儒林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오히려 反大院君의 기운을 조성하여 결국에는 그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大院君은 田政·軍政·還穀의 이른바 三政의 문란을 수습하는데 있어서도 과감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그는 자신에게 급여된 免稅田 1,000결을 자진하여 戶曹에 반납하여 국가 재정을 보충하는데 솔선수범하였는가 하면, 1867년 2월부터는 종래 각도 觀察使가 任地에 부임하는 즉시로 그 지방의 특산물을 거두어 왕실이나 권문세가에 진상·헌납하던 전례를 私獻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하여 폐지하도록 명하였다.²³⁾ 그리고 정액 이상의 免稅田을 환수하여 토지 검병을 강력히 억제하는 동시에 관리나 土豪들의 탐학을 엄히 다스렸다.

그리고 軍布와 還穀의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戶布法과 社倉法을 시행하였다. 전자는 종래 양민에 한하여 人頭稅(兵役稅) 형식으로 부과되던 軍布를 戶布(家戶稅)로 바꾸어, 그 징수 대상을 兩班에게까지 확대시킨 세계였고, 후자는 社倉의 還穀을 대여받아 농민들 스스로 하여금 환곡의 賑貸를 운영케 한 구휼 제도였다. 그런데 戶布法の 제정은 이에 앞서 시행되었던 洞布制가 결과적으로 窮班·賤民에게만 그 부담을 이행시켜 갔던 데서 이의 시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원래 大院君은 三政의 문란 속에서 良役 인구의 감소에 따른 軍布 수입의 감축과 양민 부담의 가중 등을 들어, 이를 지양하고자 高宗 초에 실시했던 것이 이른바 洞布制이다. 즉 각 군현의 軍額元數에 해당하는 軍布를 管内家戶의 대소에 따라 班·常戶를 가리지 않고 분배하여 징수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신분의 混淆를 초래한다는 양반층의 반발로 인하여 균일

22) 同上, 高宗 8年 3月 20日條.

23) 《高宗實錄》, 高宗 4年 2月 13日條.

하게 시행되지 못하였고, 그러한 속에서 軍布·洞布·結布 등의 各樣한 수취 명목이 郡縣에 따라 各異하게 존재하는 혼란과 아울러 洞布의 부담이 殘班·殘民에게만 가중되어 가는 양상을 빚어갔다.

이리하여 1871년 4월에는 양반 계급이 납세하는 것에 대하여 위신 문제라는 반대론도 감안하여 양반계급의 납세는 하인인 奴僕의 이름으로 納布토록 하는 戶布法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이다.²⁴⁾ 이는 형식상 또는 명의상으로 양반은 군포 납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 소득의 빈부 차이도 가리지 않고 每戶當 2냥씩 균일하게 부과한 것은 오늘날의 상식으로 본다면 일반 평민층의 불평과 반대가 대단할 것이었다. 그런데도 戶布制 실시에 대한 반대론은 평민층이 아닌 양반 특권계급에서 대두되었다. 이리하여 拒納 및 避納은 여전하여, 戶布法의 실시는 결국 殘班·殘民만의 所定 세액의 4·5배에 달하는 부담을 지니는 결과를 빚어 놓는데 그쳐지고 말았다. 그리고 양반층으로 하여금 反大院君的 기운을 더욱 조장케 하는 한편, 殘班層의 반사회적 항거 의식을 더욱 강렬하게 하였던 또 하나의 계기를 이루어 놓았다.

大院君은 이러한 弊政改革의 시책과 더불어 생활의 간편화와 節儉을 기하는 풍습의 개선에도 노력하였고, 또 西勢의 東漸에서 유발되었던 위기 의식의 점증에 따른 국방 정책의 강화에도 힘을 기울였다.²⁵⁾

Ⅲ. 崔益鉉의 彈劾上疏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大院君은 오랫동안 세도를 부리던 安東金氏의 외척 세력을 몰아내고 왕실 중심의 세도 정치를 단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반계층의 횡포를 억제하고 문벌과 당색을 타파하며 탐관오리를 숙청하는 등 內政의 일대 혁신을 기도하였다. 이리하여 三政의 문란에서 크게 동요되었던 민심을

24) 韓泊勛, “大院君의 稅源擴張策의 一端-高宗朝 洞布·戶布制實施와 그 後幣”,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69, pp. 297~310

25) 李瑄根, 前掲書, pp. 208~218

잠시나마 진정시키게 되었음은 훌륭한 그의 치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院君의 지나친 宗室 위주의 전제적 경향은 이에 반감을 품은 趙大妃 일파와 書院의 정리, 戶布法의 실시 등으로 反大院君의 기운을 형성해 가고 있던 양반, 유림들로 하여금 閔妃와 결탁하여 反大院君派를 형성시키는 계기를 낳게 했다. 이것이 또한 10년 세도의 大院君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대원군은 반평생을 安東金氏의 세도정치 밑에서 지내면서 그 폐해를 통감했었다. 때문에 그는 집권 후 高宗妃 간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외척으로서 발호할 우려가 없고 또 정권에 간여하지 않을 인물을 물색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大院君은 자기 妻家의 근친으로서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거의 의지할 데 없이 자란 閔妃를 간택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배려와는 달리 걸출한 정치 역량을 겸비한 閔妃는 世子 冊立 문제 등으로 大院君과 반목이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놀랍고도 기민한 수완을 발휘하여 反大院君 세력을 형성해 나갔다. 일찌기 大院君의 失政을 논박했던 華西 李恒老의 門人 勉菴 崔益鉉과 같은 유림의 거물에게 손을 뻗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만일의 경우 국민의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기 위해서였다.²⁶⁾

이와같이 閔妃는 大院君이 짐작도 못하는 사이에 그의 정치적 아성을 무찌를 수 있는 확고한 세력을 구축했는가 하면 高宗 자신도 즉위 10년째에 접어들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증되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閔妃側은 大院君과 정부 요로에 대해 정면공격을 가하게 되었으니, 그 한 예가 1873년(高宗 10) 10월 大院君이 기피하는 인물인 崔益鉉을 承政院의 同副承旨로 기용하여 大院君의 失政을 탄핵하는 上疏를 하게 한 것이다. 그 내용의 일부를 摘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²⁷⁾

26) 同上書, pp. 342~347

27) 이에 앞서 崔益鉉은 高宗 5年(1868) 10월 10일 司憲府 掌令에 임명된 직후 이른바 時弊四條疏를 올려 ① 土木役事를 중지하고, ② 聚斂政治를 금하며, ③ 當百錢을 혁파하고, ④ 四大門稅의 징수를 금지하라고 주장하여 大院君을 공격하였었다. 《勉菴集》, 掌令時言事疏 戊辰 十月十日

「…근년에 이르러 政事는 옛 법을 변경하고 사람은 주건 없이 되어 大臣이나 六卿은 建白하는 의논이 없고, 臺諫이나 侍從은 일 벌리기 좋아한다는 비방을 피하여, 조정에는 속된 논쟁만이 자행되고 正諫는 소멸되며, 아첨하는 사람이 뜻을 얻고 곧은 선비는 물러가며, 賦斂이 설 새 없어 生民은 魚肉이 되고 倫理는 무너져서 사기가 저하되며, 공정을 일삼는 자를 괴이하고 과격하다 하고, 私事를 일삼는 자를 잘하는 일이라 하니, 염치없는 사람은 성한 때를 만나고, 지조있는 사람은 나른히 죽게 되어 하늘의 재변이 위에서 나타나고 땅의 변괴가 아래에서 일어나며, 雨·陽·寒·暑가 모두 그 정상을 잃었습니다. …지금 만약 성충을 힘입어 負乘의 경계를 갖지 않고 복에 넘치는 재앙도 생각하지 않고서, 行伍와 대열을 따라 길에서 呼唱하고 다니며 의기양양하여 고려하거나 꺼리는 바가 없으면, 또한 어찌 사람들의 말이 준열하게 일어나 無將罪와 不敬罪가 뒤따라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까?」²⁸⁾

이와 같이 崔益鉉은 상소로써 大院君의 秘政을 거의 노골적으로 비난, 공격하였는데, 당시 京畿監司 金在顯으로부터 상소를 받아 본 大院君은 진노하여 즉시 상소장을 반송케 하는 한편, 자기의 黨與를 총동원하여 상소의 내용을 반박하고 혹은 崔益鉉의 처벌을 주장하게 하였다.

더우기 崔益鉉의 상소문 중에는, ‘大臣이나 六卿은 建白하는 의논이 없고 臺諫이나 侍從은 일 벌리기 좋아한다는 비방을 피하여, 朝廷에는 쓸데 없는俗된 論爭만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여, 정치가 점차 문란해져 가는 데에도, 이의 시정을 건의하는 正論·直言이 없음을 지적하여 臺諫들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崔益鉉의 상소에 대한 高宗의 처리 여하는 곧 바로 大院君과 閔妃 사이의 정치적인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 것임을 물론, 정부 전체에도 중대한 파문을 던질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년 10월 25일자 崔益鉉의 상소에 대한 高宗의 批答은

28) 《勉菴集》 辭同副承旨疏 癸酉十月十六日, 且見挽近以來 政變舊章 人取軟熟 大臣六卿 無建白之議 臺諫侍從 避好事之謗 朝廷之上 俗論恣行而正諫消 諂佞肆志而直士藏 賦斂不息 生民魚肉 彝倫敦喪 士氣沮敗 事公者謂之乖激 事私者謂之得計 無恥者沛然而得時 有守者恭然而瀆死 以致川災見於上 地變作於下 雨暘寒暑俱失其當 ……今若憑恃寵靈 罔存負乘之戒 不念過福之災 隨行逐隊 呼唱道路 揚揚自是而無所顧忌 則亦安知無人言峻發 無將不敬之誅 接迹而起也.

‘최익현의 상소는 실로 충심에서 나왔고 또 寡人을 경계한 말이 지극히 가상하다. 列聖朝의 훌륭한 업적을 본받아 감히 戶曹參判에 제수한다. 이와 같이 정직한 말에 異論을 제기하는 자는 小人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²⁹⁾ 하여 오히려 崔益鉉을 칭찬하는 동시에 그에게 戶曹參判의 벼슬을 내렸다. 이와 같은 처사는 大院君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大院君은 체면상 침묵을 지키고, 요로 대신들과 臺諫들이 총동원되어 스스로 인책할 것을 각오하고 연일 상소를 하여 崔益鉉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된 상소의 문구 내용은 ‘인륜이 무너졌다’ ‘政事가 옛 법을 변경하였다’ ‘俗論이 자행되고 아침하는 사람이 뜻을 얻었다’ ‘私를 일삼는 자를 잘하는 일이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당시 崔益鉉을 탄핵하는 정부 대신들의 정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26일에는 左議政 姜澯와 右議政 韓啓源이 연명으로 劄子하여 崔益鉉의 疏言에 따라 물러날 것을 청하였으나 高宗의 批答은 전날과 같이 ‘최익현의 상소는 오로지 충심에서 나온 것이므로 卿들은 過引하지 말고 자기의 직무를 다하라. 朕 또한 깊이 생각하여 처리할 것이다’하여 간단히 무마하는 정도였고, 그 다음 날에는 領敦寧府事 洪淳穆이 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렸으나 高宗의 批答은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뒤이어 兩司와 弘文館·承政院 등에서도 연명으로 劄子를 올려 崔益鉉을 규탄하며 스스로 인책할 것을 청하였으나, 高宗은 이에 강경히 맞서 상소한 사람들을 모두 罷職시키었다.

뿐만 아니라 28일에는 經筵을 베푸는 慈慶殿에서 講官 李承輔와 權鼎鎬 등이 교대로 上言하여 崔益鉉을 죄주기를 청하였고, 刑曹參議 安驥泳과 전 正言 許元栻도 교대로 상소하여 崔益鉉의 소장을 논박하고 그를 국문하거나 유배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나 도리어 두 사람이 다 유배형에 처해졌다. 成均館의 유생들도 崔益鉉의 疏文 중 ‘인륜이 무너졌다’는 문구는 ‘文教成化’의 세상을 모독하는 것이라 하여 捲堂까지 단행하였으나 高宗은 이에 대해서도 좋은 말

29) 《勉菴集》年譜 및 《承政院日記》, 高宗 10年 10月 25日條, 批曰 爾之此疏 實出於哀曲 且爲戒予之辭 極爲嘉尙 敢述列聖朝盛事 戶曹參判除授 而如此正直之言 若有岐貳者 即不免於小人矣.

로 설득하다가 듣지 않자 주모자들을 모두 極邊遠配케 하고 나머지 유생들에게는 모두 停擧의 처분을 내리었다.³⁰⁾

이와 같이 연일 대신들이 상소하여 崔益鉉을 탄핵하자, 동년 11월 3일에 가서는 최익현 자신도 자신에 대한 공격 목표가 된 상소문 중의 '정사가 옛 법을 변경했고 인륜이 무너졌다'는 내용을 다시 부연 설명하여 다음과 같이 再上疏를 올렸다.

「…현재 國事가 폐단 없는 곳이 없으니, 명분이 바르지 못한 것과 말이 순하지 못한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읍니다만, 그 중에 더욱 현저하고도 큰 것을 든다면, 萬東廟의 撤祭는 君臣의 윤리가 무너진 것이요, 書院의 廢罷는 師弟間의 의리가 끊어진 것이요, 鬼神의 出後는 父子間의 윤기가 문란해진 것이요, 國賊을 伸冤한 것은 충신과 역적의 분별이 혼동된 것이요 胡錢의 사용은 中華와 夷狄의 구별이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다만 이 두세 가지 조건이 한 덩어리가 되어 天理와 倫理가 이미 모조리 무너져서 다시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土木工事와 願納錢의 類가 서로 안팎이 되어 백성에게 재앙이 되고 나라의 禍가 되는 요인이 되어온 지 몇 년이 되었으니, 이것이 先王의 옛 법을 변경하고 天下의 人倫을 무너뜨리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무릇 이러한 일들이 지금껏 지켜온 法度를 변경하여 어지럽힌 것이며, 또한 殿下께서 나이 어리시어 專政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니, 전하께서 스스로 하신 실수가 아닙니다. 특히 일을 맡은 신하가 聖上의 총명을 막아 가리우고 위엄과 복을 마음대로 부려 강령과 조목이 모두 害이 되어 오늘의 고질과 弊해가 있게 된 것입니다…」³¹⁾

이상과 같이 崔益鉉은 前疏에서 못다한 五條疏를 부연하고 또 大院君의 專橫을 공격한 다음, 지금부터는 마땅히 정치에 힘써 三公·六卿에게 책임을 맡기되, '그 어떤 지위에도 있지 않고 親親의 列에만 속한 사람(大院君을 지칭함)

30) 同上書, 高宗 10年 10月 25, 27, 28, 29日條.

31) 《勉菴集》, 辭戶曹參判兼陳所懷所, 癸酉十一月三日條 및 《承政院日記》 高宗 10年 11月 30日條, 見今國事無處無幣名之不正言之不順 非更僕可了 而第舉其尤著且大者 則皇廟之撤 君臣之倫斃矣 書院之罷 師生之義絕矣 鬼神出後 父子之親紊矣 國賊伸雪 鬼逆之分混矣 胡錢之用 華夷之別亂矣 惟此數三條件 打成一片 天理民彝 固已蕩然而無復存矣 加之土木願納之類 相爲表裏 而爲殃民禍國之資斧者 幾年于茲矣 此非變先王之舊章 教天下之彝倫而何哉 ……凡此數者之變亂成憲 實 在殿下冲年未專政之日 則未必皆殿下自致之失也 特因任事之臣 壅蔽聰明 操縱威福 綱目俱弛 而致有今日之痼幣也.

에게는 그 지위를 높이고 그의 祿을 후하게 하되, 나라의 정사에는 간여하지 말게하라³²⁾고 하여, 高宗의 親政을 강조하고 그 대신 大院君의 去勢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때에는 高宗도 22세의 成年이 되어 萬機를 親裁하기로 이미 결심한 뒤였다. 그러므로 崔益鉉의 上疏 내용을 본 高宗은 ‘萬東廟의 일은 이미 慈聖(趙大妃)의 처분이 있었으므로 감히 거론하지 못하겠다’고 批答하고 이어 傳敎하기를, “戶曹參判 崔益鉉의 再上疏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임금을 능멸하는 말이 많이 있으니, 어찌 그럴 도리가 있겠는가? 아주 놀랍다. 流配의 律을 시행하라”³³⁾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高宗의 傳旨가 내려지자 相臣들이 請對하여 국정을 설치하고 罪情을 캐내어 刑律을 쾌히 시행하기를 청하였고, 弘文館·司憲府·司諫院에서도 연명으로 劄子를 올려 萬東廟를 復設하는 것과 親親의 列에 대한 논의 등 공박을 하였으나, 高宗은 崔益鉉의 상소는 시골뜨기의 무지한 소치라 하여 不允하는 分부를 내렸다. 그런데도 相臣과 臺諫들이 兪동원되어 崔益鉉의 罪政을 캐내려고 筵席을 파한 뒤에 또 寘廳에 앉아 啓를 올리자 高宗도 부득이 대신의 청이 이러하니 ‘그대로 시행’하라고 批答하였다.³⁴⁾

이리하여 5일에는 庶務親裁의 일을 朝報에 반포케 하는 한편 대신들을 불러 諮詢한 후, 崔益鉉을 義禁府에 하옥시켰다. 그리고 8일에는 義禁府에서 推鞠이 행해졌는데, 그 推問 내용은 상소 내용 중의 5條와 親親을 國政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劄子, 疏를 쓸 때 의논한 사람과 직접 쓴 사람 등을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崔益鉉이 義禁府에 수감되어 있을 때, 中宮殿에서 비딜리에 사람을 보내어 密書를 전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청에서 심문할 때 답변하라는 것으로, 첫째 萬東廟의 처분은 東朝(趙大妃)에서 내렸으니, 다시 거론하지 말고, 둘째 孝純·來善·玄逸 등 3 죄인에 관한 일은 宗社에 관계된 것이

32) 同上書, 惟屬於親親之列者 只當尊其位重其祿 同其好惡 勿使干預國政

33) 《承政院日記》, 高宗 10年 11月 3日條.

34) 同上書, 高宗 10年 11月 4, 5, 6, 7, 8日條.

니 상세히 공술해야 하며, 세째 백성의 病과 나라의 근심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으니 그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술하라고 하였다. 즉 大院君의 失政을 공격하라는 내용이었다.³⁵⁾

그러나 推鞠 당시 崔益鉉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심문이 끝난 후 供招의 내용을 본 高宗은 “별로 다시 물을 만한 단서가 없다” 하고, 또 “慈殿으로부터 특별히 가벼운 律로 시행하라는 분부를 받았으니 어찌 받들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承政院에서 세 차례나 啓를 올리고 大臣과 義禁府 堂上들이 進對하여 刑推하기를 극력 청하며, “지금 만약 형벌을 쓸 수 없다면 기다렸다가 明年 봄에 국문을 끝내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신들이 모두 城門을 나가서 下命을 기다리자 高宗은 노하여, “전후의 下教에서 나의 뜻을 다 말하였으며, 또 慈殿의 下教를 내린 것으로 大義理를 삼아야 하는데 무단히 성문을 나가 버리니, 만일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같이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모두 파직시키는 한편,³⁶⁾ 崔益鉉을 귀양보낼 곳을 草記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이에 知義禁府事 朴珪壽가 독단으로 草記하여 올렸으며,³⁷⁾ 이에 따라 高宗은 10일자로 崔益鉉을 濟州牧에 圍籬安置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絀의 현이 서울을 떠난 것은 12월 13일이었다.

이리하여 高宗과 閔妃의 斗護를 받은 崔益鉉은 형식상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으나 이와 때를 같이하여 高宗의 親政이 시작되고, 大院君은 10년 勢道の 권좌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閔妃의 조종하에 이루어진 崔益鉉의 大院君 탄핵 상소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IV. 流配의 旅程과 그 實況³⁸⁾

35) 《勉菴集》, 耽謫顛末 및 年譜條

36) 《承政院日記》, 高宗 10年 11月 9, 10日條.

37) 《勉菴集》, 年譜條

38) 여기서는 《勉菴集》 耽謫顛末과 年譜를 중심으로 하여 엮었다.

1873년 11월 3일 '정사가 옛 법을 변경했고 인륜이 무너졌다'는 내용을 부연하여 5條疏를 올렸다. 王은 상소의 문구 중에 임금의 능멸하는 말이 많다 하여 流配의 律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4일 이후 崔益鉉을 推鞠하라는 劄子가 계속되었으나 王은 허락치 않고, 최익현의 찬배를 속히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6일 대신들이 계속 劄子를 올려 추국을 요청하자 王도 부득이 이를 윤허하였다. 최익현은 橫院店에서 拿致되어 義禁府로 압송되었다.

8일 義禁府 南間에 수감되었다가 이날 밤 삼경에 국청을 베풀었다. (南間방 제도는 네 벽에 창이 없고 오직 북쪽으로 한 구석에 두어자쯤 되는 판자문을 달고 문밖에는 搖鈴 10여 개를 달아놓아 서로 부딪쳐 소리가 나게 하여 바깥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였다. 죄인에게는 목에 큰 칼을 씌우고 손에는 수갑을, 발에는 차꼬를 각각 채웠다. 騎兵과 鄉軍 두 사람이 衛將所<五衛長이 속직하던 職所>에서 와서 번갈아 감시하였고, 음식을 지급하는 일은 繕工監과 禮賓寺에서 들여 보냈다. 刑房의 書吏 한 사람이 이따금 드나들면서 말을 주고 받았다)

9일 추국을 철회하고 귀양보낼 곳을 草記하여 올리게 하였다. 이에 朴珪壽가 獨斷하여 草記를 올렸다.

10일 義禁府 南間에서 西間으로 옮겼다가 밤 삼경에 金吾(義禁府 別稱)門을 나왔다. (날이 셀 때까지 崔益鉉은 봉긋방에서 옷 입은 채로 잠을 자는데, 權秉殷과 李純翼이 촛불을 들고 찾아와서 작별하고 갔다. 날이 밝자 南門을 나와 쉬면서 金吾의 監押을 기다리는데, 朴珪壽가 와서 1천 貝의 노자를 주면서 소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외에 尹致賢·尹周伯·徐汝賚·柳聖方·李君一·安琦良·李在秀·李承會 등도 만났으며, 梁憲洙는 추후로 의복과 노자를 몰래 부쳐왔다. 옥에서 나오자 도성 백성들이 뿔뿔이 기뻐하였으며,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얼굴 보기를 원하며 지나는 곳이나 쉬는 곳에는 사람이 붐볐고, 또 酒饌을 가지고 와서 공급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벼슬아치와 유생들은 혹 누가 미칠까 두려워하며 모두 문을 닫아 버리고 들어앉아서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13일 義禁府 郎廳 李元儀가 압송해 가는데 밤새 한강을 건넜다. (이에 앞서 人定 때쯤 金吾의 일행이 와서 길 떠나기를 재촉하였다. 이때 하늘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추위가 매우 혹독하였으나 嚴程, 즉 기한이 정해진 旅程을 지체할 수 없다

하여 곧 가마 한 채를 새내어 길에 오르니, 뒤따르는 사람은 族人과 僮從 각기 한 사람 뿐이었으며 행장이라고는 朱子齋 한 질뿐이었다.) 마침내 銅雀津을 건너고 南泰嶺을 넘어서 果川 고을 부근에 이르자 닭이 울었다. 뒤따라오는 일행들은 눈보라와 진흙탕 길에 시달려 모두 死色이 되었다. 드디어 한 집을 찾아 들어가 술을 데워 추위를 가시고 잠시 옷을 입은 채로 잤다. 행장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하루를 묵었다. 申時 후에 舍伯과 아들 永祚 및 여러 집안 사람들과 始興의 安士聖이 모두 와서 모여 밤이 새도록 情談을 나누었다. 특히 맏아들 永祚는 여러날 金吾門 밖에서 거적을 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울며 작별을 고하니, 최익현은 조금도 슬퍼하거나 위로하는 말은 하지 않고 다만 祖父를 잘 봉양하고 독서를 부지런히 하라는 것으로 거듭 경계하였다.

출발하여 水原에 이르니 判官 鄭光始가 점심을 내었고, 天安에 이르니 郡守 李恒信이 朝飯을 냈으며, 柳老人 官五가 돈 세냥과 藥 10첩을 주었고, 泰仁에 이르니 縣監 張福遠이 두세 번 衙前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長城에 이르니 府使 鄭善始가 이틀 동안 조반과 석찬을 냈으며, 羅州에 이르니 牧使 宋寅玉이 조반과 석찬을 내고, 營將 李德純은 同鄉의 벗인데, 路費를 청하자 돈 50 꿍미를 노자로 주었다. 靈巖 德津店에 이르니 同宗 景文이 와서 기다리다가 역시 돈 세냥을 보태 주었고, 郡에 이르니 郡守 具然植이 조반과 석찬을 내었다. 여기서부터 康津 및 梨津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官에서 공급하였다.

28일 梨津에 이르러 바람을 기다렸다. 禁府都事가 바람이 자기를 기다려 떠나겠다는 뜻으로 狀啓를 발송하므로, 최익현도 그 편에 집으로 편지를 붙였는데, 驍隸 등은 모두 여기서 하직을 고하였다. 여기서 이틀을 묵은 후, 12월 3일에 비로소 조그마한 배 한척을 얻어 타고 노를 저어 약 70리 가량을 가니 所安島에 도착하였다.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피로하여 잠자리에 들었는데, 뱃사공이 바람이 불어 출발할 만하다 하므로 첫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새벽 丑時 경) 배에 올랐다. 제주와의 중간 즈음에 이르렀을 때 뱃멀미가 크게 일어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朝川浦에 이르니 시간이 巳時 즈음 되었는데, 눈을 들어 햇별을 쏘이니 멀미

가 조금 가라 앉았다. 앞을 바라보니 漢拏山의 한 줄기가 남쪽을 가로막아 있고 四面이 큰 바다인데, 아득하여 끝이 없으니 참으로 기이한 곳이었다.

배에서 내려 朝川鐵舍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밥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城(濟州牧) 안으로 들어가서 尹奎煥(奇福)의 집에 館所를 정하였는데, 金吾와 牧使(李宥熙)가 감독하여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자물쇠를 채우니 때는 설달 5일이었다. (만가지 잡념이 모두 사라져 운명인 듯 앞으로 편안히 지낼 것 같았다. 대저 처음 출발한 날부터 날씨가 청명하였으며, 都事와 부속들이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서 철저히 보호하여 水陸 2천리 길에 무사히 도착하여 잘못됨이 없었으니, 진실로 그 까닭을 究明해 보면 主上(高宗)의 은혜이며 朝廷의 덕분이었다.)

禁府都事³⁹⁾ 및 牧使 李宥熙가 와서 圍籬를 감시하고 供饋 등물은 本官(제주목)에서 대어 주었다.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 조용히 있으면서 매일 朱子書를 외고, 또 校宮에 간직된 《尤菴集》 1秩을 빌려 潛心玩索하며 귀양살이의 괴로움을 아주 잊어 버렸다.⁴⁰⁾

島内の 文士로 安達三·金羲正·姜基碩·金龍徵·金璫·金致瑢·金養洙 같은 이들이 왕래하며 중유하였고, 湖西 사람 孟文浩·崔榮煥, 湖南 사람 崔勝鉉·朴海量·金孝煥·金衡培·安璉煥·李弼世가 모두 바다를 건너와서 뵈었다.

1874년(高宗 11년) 3월 尤翁謫廬碑를 奉審하고 天一亭·運籌堂을 거쳐 橋林書院 옛 터를 가보았다. (韻字를 뽑아 회포를 썼다.)⁴¹⁾

1875년 3월 16일 解配에 대한 公文이 당도하자 判官 李時鉉이 公服을 갖추어 입고 와서 圍籬를 철거하였다.

25일 굴림서원 옛 터에 가서 다섯 선생(五賢)에게 祭文을 올려 제사하였다. (原文이 전한다.)⁴²⁾

27일 漢拏山에 올라 白鹿潭과 千佛巖 등의 명승을 두루 구경하였다.(漢拏山

39) 禁府都事 李元儀가 돌아갈 때 別李都事元儀還京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어 작별했다. 《勉菴集》 詩 參照.

40) 이 때의 심경을 '次李燻寄示韻'이라는 시에서 엿볼 수 있다.

41) 《勉菴集》 詩條에 '掛弓軒次板上韻癸酉'라는 詩가 있다.

42) 上同書 祭文條에 '橋林書院遺址祭五先生文'이 있다.

記가 전한다)⁴³⁾

4월 12일 어둑어둑할 때 別刀鑕에서 배를 띄워 밤낮 이틀을 지나 梨津에 도착하였다. 이때 門人 金義正과 집주인 尹奇福이 拜行하였다.

1873년(高宗 10년) 12월 5일 入島

1875년(高宗 12년) 4월 12일 出陸

※流配其間の 書簡文

연 대	월	일	제 목	비 고
高宗 10년	12	18	與從弟九玉(鼎鉉)	배를 타고 서너시간 만에 제주에 도착한 내용
"	12	18	與長子永祚	그간 친구에게서 온 편지 내용을 요약 하여 부침
高宗 11년	2	10	與永祚	근신당부
"	3	20	上伯從兄	안 부
"	3		答柳聖存(其一)	"
"	4	10	與伯從兄	朴遇賢의 上疏를 論함
"	4	10	與永祚	고기 몇 마리를 편지에 동봉해 부침. 皇廟를 斷辭한 儒生3인이 글을 보내 存門했다.
"	4		與李黃溪(璞)	五賢에 대하여 논함
"	5	13	上伯從兄	新任 判官夫人을 통해 3政承이 성문밖에서 引賣한 사실을 알았다.
"	8	1	答伯從兄	제주에 오지말라 함. 朴遇賢의 상소를 再論함
"	8	27	與永祚	前牧使 편에 붙인 편지의 수신 여부를 확인
"	8.9	월경	答柳樞程(重教)	안 부
"	10	20	答永祚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 면학하라는 내용과 이곳에서 제자를 교육시킨다는 내용도 있음.
"	10	20	與從弟九玉	안 부
"	10	22	上金重菴	세상 일을 토론함
"	10		與柳樞程	鬼神의 出後에 대해 논함
"	11	7	答伯從兄	한라산 구경을 사양하십사하는 내용
"	11	7	答永祚	夫人의 眼疾을 걱정함
"	미	상	上金重菴	세상사 토론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教學活動研究

高宗 12년	1	1	上伯從兄	親親의 列에 대해 언급(私親만이 아니라 外戚과 내의 훈척도 포함된다함.)
"	2	20	答伯從兄	答書
"	2	20	答李芝亭(璋)	洋學에 대해 논함
"	2	21	答永祚	문안차 오겠다는 것을 말리는 내용
"	미	상	答愼天甫	前後任 牧使의 厚待, 濟州 지리에 익숙. 이곳 사람들과의 친분 등

(이상의 書簡文의 내용을 보면 崔益鉉은 1년 4개월여의 濟州 流配 생활을 困窮安置人 답지않게 편안히 보내었음을 알 수 있다. 前後任 牧使의 厚待, 弟子養成, 濟州 지리에 익숙할 정도의 나들이, 本土 親知들과의 부단한 書信 왕래 등은 그를 말해 준다.)

43) 上同書 記條에 '遊漢琴山記'가 있다.

44) 이 때의 심정을 '別刀鎭乘船乙亥'라는 시로써 토로했다. <勉菴集> 詩 參照.

V.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梁 鎮 健

1. 勉菴의 教學位相

여기서는 勉菴 崔益鉉(1833~1906)의 제주 유배 기간(1873. 12. 5~1875. 4. 12) 동안의 활동 가운데 教學 活動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여기서 말하는 教學 活動이란 스승으로부터 道를 전해 받아서 제자에게 道를 전해주는 性理學의 繼往開來的 傳統의 승계 작업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교육의 형식으로서 師生 혹은 師問하여 배움을 청하는 형식은 물론이거니와 다만 書翰으로 問目을 하거나 혹은 書贊을 올려서 師生 관계를 맺는 등의 여러 방법을 총칭하는 것이다. 특히 故人 또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속으로 그 덕을 사모하고 直接 가르침이 없어도 그 사람을 스승으로 하여 자기 학문을 닦는 私淑弟子의 關係는 教學 活動의 주요 맥락이다.

勉菴은 李恒老의 初傳(제1대 제자)으로서 李珥 → 金長生 → 宋時烈 → 李端相 → 金昌翁 → 朴弼周 → 李友信 → 李恒老로 이어지는 畿湖學派의 전통을 승계하는 조선조 말기 斥邪論의 巨儒이다.

조선조 말기 척사론의 大河의 맥락은 李恒老와 奇正鎭에 의해 제기되는데 기정진의 斥邪論議는 사상사적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이항로의 그것은 그의 문인들에 의해 이어지며 특히 勉菴에 의해 義兵運動으로 확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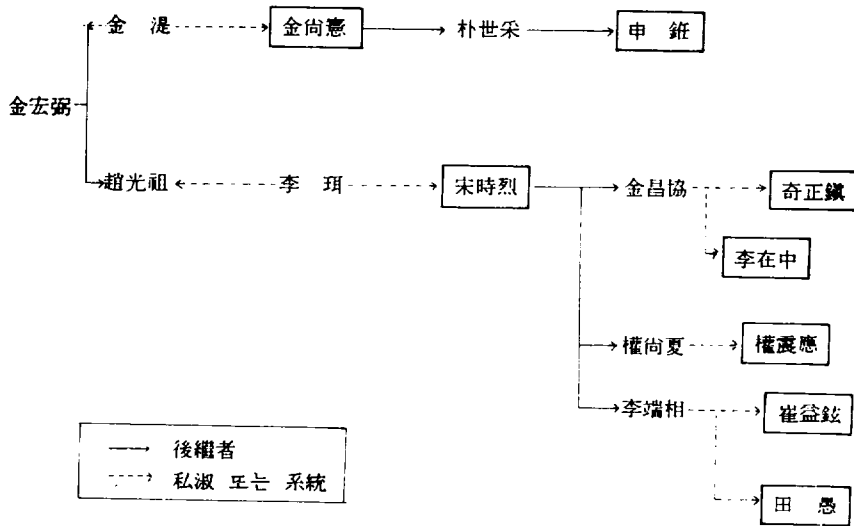
이항로의 척사론이 면암에 의해 척사운동으로 확산된 것은 丙寅洋擾(1866)와 丙子修好條約(1876)이 계기가 되었는데 이로부터 척사론은 西學에 대한 이

론적 비판의 단계를 넘어서 倭洋이 一體라는 인식 위에서 침략적 외세에 대한 항쟁의 단계에로 전환이 이루어 진다.

이렇듯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개성을 강한 실천적 의식으로 개선시키고자 했던 면암은 사상적 전환의 와중에서 제주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불혹의 문턱에 들어서 사상적 활력이 가장 만개하였을 41세였다.

勉菴이 승계하였던 畿湖學風과 濟州島와의 인연은 일찌기 安撫使 金尙憲, 流配人 宋時烈, 申鉉, 李在中, 權震應 등을 통해 이루어 졌는데, 文風을 진작시키는 데는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가 거주하거나 수령으로 재임하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게 조선조의 상례였듯이 이들은 모두 제주의 文教發展에 남다른 몫을 하였다. 이 밖에 奇正鑣이나 田愚의 경우는 제주의 文士들이 出陸하여 그들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기호학풍을 전수받기도 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개략적으로 이들 師弟淵源의 系譜를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기호학과 사상적 질서체계의 커다란 맥락이기도 하다.



金尙憲이 제주에 내도할 당시(1601)는 畿湖의 학풍과 尹根壽의 門에서 길러진 名分을 고수하는 學的 態度가 가장 무르익었을 32세 때였는데 그당시 그는

스스로의 독서가 극히 적다고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학문, 문장의 연원이 所從來가 있음을 자부하고 있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제주에서 鄭應禎에게 이어진다.

宋時烈은 金尙憲을 大義의 宗主라 생각하고 書贊(서신으로 裴백에 대신함)를 올려서 사제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또한 신임은 朴世采의 문인이자 김상헌 학통의 再傳(제2대 제자)으로 각기 83(1689), 84(1722)세의 고령에 제주유배로 내도하였는데 당대의 거유로서 그들의 立地 자체가 유림의 큰 자극이었기에 그들이 제주에 끼친 교학적 영향력은 과장을 짐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특히 宋時烈은 그의 스승인 金長生으로부터 의리를 내용으로 하는 禮學을 습득하고 김상헌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義理學派를 여는 지분이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의리학풍을 면암의 유배로 직접적으로 제주문사들에게 승계된다.

조선조 말기(18C)에 접어들면서 기호학풍은 湖洛學派로 분열양상을 보이는데 湖學은 권상하에서 시작되어 權震應의 스승인 韓元震이 계승하였고 洛學은 金昌協에 원유되어 李存中의 스승인 李緯가 지켰다. 유배인으로서 권진웅(1771)과 이존중(1751)은 이러한 자신들의 학풍을 제주도 지역에 전파하는데 각기 나름의 몫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조선조 말기(19C)의 기호학풍을 주도하는 세력은 李恒老의 華西學派, 奇正鎭의 蘆沙學派, 田愚의 良齋學派로 크게 대별할 수 있으며, 화서학파는 면암의 제주 유배를 통해, 蘆沙學派를 濟州文士인 安達三, 高性謙, 李啓徵, 梁觀, 玄尙希 등의 방문, 良齋學派는 濟州文士인 高景洙, 金泰交, 金玉林, 金景鍾, 高炳五 등의 방문을 통해 그 학풍의 전파가 이루어진다.

2. 勉菴의 敎學思想

조선조 말기의 성리학계는 主理·主氣의 편향이 심화되지만 主理派는 수세의 양면으로 主氣派를 능가하고 사상계를 장식한다. 면암의 사상적 기초 역시 완고한 주리파 계열의 내용인데 “사람들이 理는 無爲하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동하고 또 정하다고 한것은 有爲요 無爲가 아니다. 그 理는 진실로 무위

하지만 능히 유위의 주가 되는 것이니 이미 주가 된다면 동하게 하고 정하게 하는 것은 太極이 아니고 무엇인가”⁴⁵하는 명쾌한 理動的 主理說이 그것이다.

이같은 면암의 사상적 입장은 당시 조선조 정치체제의 대외관계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조선조의 체제보위라는 실천목표와 연결되어 있던 면암의 사상적 맥락은 理尊氣卑의 논리에서 조선조의 체제와 문화를 理로 보고 외세를 氣로 보는 자존적 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면암의 形而上學인 주리설은 조선조의 통치이념으로서 정통적 官學 이데올로기 기능을 담당하여 왔는데 이 주리설은 정통적 관학이 행하여야 할 역할, 즉 所當然으로서 忠을 국가기강의 공고화라는 차원에서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소당연으로서의 忠이 곧 氣 아닌 理에서 찾아지고 또는 理에 의거할 수 밖에 없는 까닭에 면암에게 있어서는 그 현실관이 斥邪衛正이라는 보수적 국권수호의 자주의식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면암은 교육의 목적을 본심을 보존하고 理를 밝히는(存心明理)데 두고⁴⁶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敬⁴⁷을 말하였다. 경이란 곧 마음을 집중하여 동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른바 내면적인 자기 혼의 정화수련을 의미한다.

면암은 이렇듯 내성적 자아확인을 교육의 근본으로 보기 때문에 教學方法論으로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아는 것보다는 참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사람이 천지간에 태어나 한 몸 에 만가지 일이 모였으니 만약 그 요령을 모두 잡고 宗旨를 정하지 않고서 다만 그 博學만을 힘쓴다면 혹 記誦하는 습관에 얽매이거나 아니면 詞調의 화려한 것에 빠질 뿐이요, 마음을 세우고 행실을 돈독하게 하는 데는 참으로 얻음

45) 人好言理無爲, 若言動而靜而, 則是有爲也, 非無爲也, 夫理固無爲而能爲有爲之主既爲之主則, 動之靜之者, 非太極而何《勉菴集》 書示高淸汝有錄

46) 存心明理四者, 是朱子所以爲聖人處也…… 朱子平生工夫, 却只在成就 那一句《勉菴集》 恒陽漫錄

47) 明理不以敬, 則昏惑紛擾, 無以察義理之歸, 存心不以敬, 則怠惰放肆, 無以致義理之實(同上)

이 없을 것입니다”⁴⁶⁾라고 함으로써, 면암 교학방법론의 核概念인 敬의 哲學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면암의 경은 교학의 방법론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실현의 지도이념이기도 하였다. 면암에게 있어 개인의 인격실현이란 義理의 실현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의리 실현은 경에 의존한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 여기서 우리는 “학문을 하는 뜻은 의리를 밝혀 그 몸을 닦은 뒤에 미루어 사람에게까지 미치려 함이요, 한갓 博覽強記에 힘써 문장으로 이름이나 날리고 祿利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다”⁴⁹⁾라는 화서로부터 면암에게 승계된 朱子의 學思方法論의 분위기를 목격하게 된다.

면암은 14세때 스승 화서와의 첫만남에서 洛敬閻直⁵⁰⁾ 즉 程子의 居敬窮理와 朱子의 敬以直內라는 敬을 주제로 한 學思方法論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승계의 노력이 발현된 것이 곧 면암의 教學方法論인 것이며 경의 생활화하는 실천력으로 나타난 것이 면암의 斥邪運動인 것이다.

3. 勉菴의 濟州敎學活動

濟州島에서 면암의 초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은 安達三, 金義正, 姜基碩, 金龍徵, 金堧, 金致瑋, 金養洙 그리고 李基瑄, 姜哲鎬⁵¹⁾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면암의 지적대로 ‘往來從遊’했던 문사들이며 실제 면암 자신이 門人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면암의 師友錄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는 金義正⁵²⁾이 유일하다.

48) 人生天地間, 一身萬叢若不撮其網維, 定其宗旨, 而惟博是務, 則以拘於記誦之習, 或播於詞藻之華, 其於立心, 篤行之地, 未必真有得也(勉菴集) 與僕天甫

49) 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 莫非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 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 以釣聲名, 取利祿而已(退溪全書) 上, p. 204. (朱憲의 말이다.)

50) 《勉菴集》年譜, 丙午, 春 참조

51) 島中文士, 如安達三, 金義正, 姜基碩, 金龍徵, 金堧, 金致瑋, 金養洙, 諸人, 往來從遊(勉菴集) 年譜 癸酉 十二月, 李基瑄과姜哲鎬는 편장조사에서 밝혀진 것임. (姜基碩은 姜琦爽의 誤記인 듯 함)

52) 尹榮善, 《朝鮮儒賢 淵源圖》 卷下 七 참조

이를테면 朴世采의 「東儒師友錄」의 서술방법이 門人과 從遊子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을 보자면 이러한 논리대로 제주지역의 면암의 실제적 초전은 김희정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조선조의 사우관계란 직접 수업(執贊)하지 않고도 맺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座主와 門生, 성균교관과 유생, 서신왕래(問目) 및 한두번 방문하여 학문적 질의와 토론 등의 관계에서도 사우관계가 성립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종유자를 넓게 사제의 맥락에서 검토하여도 우리가 없을 것이다.

실제, 제주목사였던 李約東과 같은 경우를 보자면 그는 「粘畢齋先生年譜」에서는 金宗直의 종유자로 기록되고 있지만 후세의 기록, 이를테면 張志淵의 「朝鮮儒教淵源」에서는 문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의 연원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이같은 것으로서 문인과 종유자의 구별은 박세채의 논리처럼 그렇게 엄격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면암의 종유자 가운데 안달삼은 기정진의 사우록에도 기정진의 문인으로 등재되어⁵³⁾ 있을뿐만 아니라 면암도 안달삼은 기정진의 문인으로 지칭하고 있어⁵⁴⁾ 따라서 안달삼 같은 경우는 그의 연원이 면암이 아니라 기정진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강기석은 유배인 金正禧와 사우관계를 맺었음을 밝혀냈는데 金正禧의 實學學風안에서 사우관계를 맺은 강기석 같은 이가 正統 性理學의 학풍을 고집하는 면암과도 쉽게 종유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유배지라는 제주도 특유의 환경 탓이지 조선조의 일반적 현상을 아니었던 것이다.

애초 학풍이 다르던가 일단 사제관계를 맺고 있다던가 하면 다른 학풍 혹은 다른 스승과는 관계맺기가 용이치 않게 되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유배지라는 환경 탓에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학풍이나 스승과도 쉽게 관계를 맺는 제주도 특유의 教學思想的 特徵을 이룬다.

이 밖에 면암의 종유자 가운데 이기온과 강철호는 지역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 이기온도 鄉土資料 곳곳에서 면암과의 관계가 돈독했음이

53) 尹榮善의 앞의 책 卷下 四三 참조

54) 《勉菴集》年譜, 乙亥 四月 참조

나타나고 있다. 특히 면암의 제주 교학활동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게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사제관계의 연원이 중요한 이유는 사제관계는 조선조 성리학적 교육 정신의 특징이며 귀결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조의 교육을 논함에 있어 사제관계는 논의의 준거점이 되는 셈인데 이것은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성리학의 사제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만남(treffen)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조 識者들의 삶의 기본전제를 의미하는 일련의 창조적인 믿음성(fidéleté creatice)을 뜻한다. 특히 戊午史禍가 일어남으로서 스승의 죄 때문에 무고한 제자도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이것을 계기로 사제관계는 학문의 傳受에서 생사의 관계로까지 심화되었듯이⁵⁵⁾ 선비가 선비인 까닭은 다른 무엇보다 사제의 人倫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관계란 운명적인 만남(begegnen)이지 일시적인 이해나 편법에 의하여 바뀌는 것은 아니다. 君師父一體 시대에 스승을 저버린다(背師)는 것은 綱常의 죄에 버금가는 도덕적 파탄행위였던 것이다.

제주 유배인 가운데 鄭蘊 같은 이는 처음에 鄭仁弘을 스승으로 하여 大北이 되었으나 뒤에 정인홍의 불리함을 보고 스스로 제자의 적을 없애고 中北이 되었다가 다시 南人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정인홍이 뒷날 죽음을 당하자 정은은 그의 시체 수습을 청해서 사제간의 도리가 끝까지 변치 않았음을 보여줌으로써 사제관계란 어떠한 이유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원칙임을 웅변한다.

면암의 제주 교학활동 흔적은 사우관계를 통해 유추하는 길이 비교적 용이하다. 이를테면 당시 제주 유림에서는 道學으로는 안달산을, 詩學으로는 김회정을 南洲 제일인자로 손꼽았는데 그들의 능력은 면암과의 종유에 의해 激昂될 수 있었던 것이다. 면암이 解配時 김회정을 동행시켰던⁵⁶⁾ 점등으로 미루어

55) 현존하는 先儒들의 연원록을 보면 대개 김종직으로부터 사제관계의 연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김종직과 함께 활동한 徐居正, 成俔, 魚世謙 등 쟁쟁한 인물들의 사우관계는 기록이 없고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이 세사람이 성종~연산에 걸친 사우관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56) 門人 金義正…… 暗行《勉菴集》年譜 乙解 四月

볼 때 스승의 도타운 애정을 느끼게 되며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데 김희정 등의 능력은 그의 개인적인 소양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같은 기회를 얻고자 했던 제주 문사들은 많았는데 吳邦烈과 같은 이는 면암에게 고을 안의 여러 선비들과 배움을 청하려 하였으나 면암이 해배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지 못했던 아쉬움의 기록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면암은 濟州島에 圍棘安置되어 資益(친구간에 학문을 면려함)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초조감이 컸었던 게 사실이다. 그는 “스승을 가까이하고 벗을 사귀면서 지혜와 견식을 넓히지 못하는 듯하니 그 낭패를 말할 수 없다”⁵⁷⁾고 큰아들에게 보내는 流配 書翰에서 낭패감을 토로하였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면암은 그 자신이 능동적으로 제주 문사들과의 관계를 서둘지는 않았다. 대신에 면암은 謫所에 있는 동안 문을 닫아 걸고 방안에 앉아 맑은 굴 향기를 음미하면서 때로 소동파가 적소에서 桂酒를 찬미했듯 막걸리를 맛보면서 마치 먼 곳에서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책상에 가득찬 글 보기를 즐겨했던 것이다.⁵⁸⁾

이즈음 면암은 유배인의 신분으로 湖西 사람 孟文浩, 崔榮煥 湖南 사람 崔勝鉉, 朴海量, 金孝煥, 金衡培, 安璣煥, 李弼世⁵⁹⁾ 등의 방문을 받는데 流配地 濟州에 한 사람의 流配人을 위해 이처럼 많은 外地人들이 내방을 한 경우도 드문게 사실이고 보면 면암의 사람됨이나 위치를 짐작케 한다. 유배의 가혹함은 대부분의 유배인들에게 유배적 현실을 비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끝내는 유배인과 유배적 현실을 절대적인 대립관계로 놓아, 살아갈 수 없는 유배적 현실을 살아나가야 하는 ‘실움’을 파생시키는 것이 통례인데 면암의 경우와 같은 파격적인 내방은 유배적 현실의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脫流配의 現實의 意志를 날게하고 나아가 유토피아적 전망을 획득케 하였음은 물론이다. 斥邪衛正의 의병운동은 그러한 유토피아적 전망의 소산임을 두말한 나위가 없을 것이다.

57) 親師就友以進知見則其爲我輩不可諱也. 《勉菴集》 答榮祚 甲戌 十月二十日

58) 이런 정황은 그의 유배한시 「次李燿密示韻」에 잘 그려져 있다.

59) 《勉菴集》 年譜 癸酉 十二月, 己卯 참조

대체로 유토피아적 전망은 그 전망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 내부의 집단적인 힘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필경 의식의 운동으로 그칠 수 밖에는 없는데 그러나 면암은 많은 내방객들을 통해 조선조말기의 시대적 비극에 동참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힘을 感知함과 동시에 유배적 상황이라는 구체적 현실에의 개인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의식의 운동 또한 맹렬히 전개하였음을 보게 된다. 그러한 의식의 운동에 대한 구체적 證票가 그의 제주에서의 교학활동인 것이며 宋時烈 등의 淵源에 대한 강한 집착인 것이다.

특히 謫所에서 면암은 宋時烈의 글에 깊이 천착하였는데 校宮에 간직된 「尤菴集」을 빌어⁶⁰⁾ 潛心玩索하는가 하면 「橘林書院遺址祭五先生文」을⁶¹⁾을 통해서 송시열의 공로가 홍수를 다스린 중국의 禹王보다도 월등하다고 자신의 연원을 찬양하기도하고 또한 유배 漢詩 「掛弓軒次板上韻」⁶²⁾을 통해서 송시열에 대해 깊은 신뢰감을 표시한다. 동문인 金平默에게 보내는 유배 서간에서는 송시열의 편지를 두어 달 가까이 보고 있노라고⁶³⁾ 하였고 큰 아들에게는 「宋子大全」을 보니 지나간 세월만 허송하여 전문이 얇은 것이 날로 부끄럽다라고⁶⁴⁾ 토로하면서 宋時烈에 대한 그의 경외감을 드러낸다.

이렇듯 면암이 적소에서, 안으로는 송시열에게 깊이 沈潛했다면 밖으로는 한라산에 깊이 魅了되었던 것 같다. 그는 제주 유배 당시 머지않아 漢拏山을 유람하리라는 것을 그 자신이 벌써부터 잘 알고 있었기라도 하듯이 한라산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으며 유배 한시를⁶⁵⁾ 통해서도 느낌을 토로하였다. 특히 해배가 되자마자 한라산 유람을 하고 「遊漢拏山記」를 쓰기도 하는데 이후 친구들에게 유배 기간의 소득으로 한라산을 본 사실을 누누히 강조했었던⁶⁶⁾ 점에 비추어 보자면 그의 한라산에 대한 매료가 상당했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형

60) 《尤菴集》年譜 癸酉 참조

61) 《尤菴集》祭文 참조

62) 巴翁當日事, 徒激後人衷 《尤菴集》詩 참조

63) 彙生妄以宋書近 數朔掛岳 《尤菴集》答金重庵 乙亥 八月十三日

64) 余閑中看宋書, 日愧前者浪度, 羨之爲見也 《尤菴集》答榮祚 甲戌 四月十日

65) 《尤菴集》掛弓軒次板上韻 참조

66) 《尤菴集》上奇蘆沙正鎮 乙亥 九月十四日 참조

에게 보내는 유배 서간에서 자신의 느낌을 “한라산을 구경할 수 있는 인연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⁶⁷⁾라고 한마디로 표출하는데 즉 한라산과 자신과의 인연을 그야말로 차원을 달리하는 만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차원을 달리하는 만남에는 적소의 종유자였던 이기온과 더불어 제주 문사 여러 명이 동행을 하게 된다. 소동파가 제주에 유배시 白水山을 여러 지기들과 같이 유람을 하였듯이 면암 역시 것처럼 동행을 하였던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師弟同行이라고 한다. 옛 선비의 사제관계를 오직 師弟同行이라는 「서로 만남」속에서야 비로소 心許하여 終平生 事之·私淑하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제동행은 이처럼 운명적이라고 돌발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이다.

면암과 이기온의 사제동행은 면암의 제주 교학활동 가운데 의미있는 일 중의 하나인데 그러한 의미를 기리는 흔적으로 文淵社같은 유적이 있다. 1931년에 창설한 문연사는 면암과 이기온의 유덕을 추모하여 매년 정월 중순에 享祀하는 계단으로서 文淵社祭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연사의 옛터에는 면암이 직접 식수한 古木이 있으며 이기온이 면암을 사모하여 刻石한 「師長樹抱且拜」라는 글이 남아있다. 이러한 문연사제와 같은 행사는 제주 유림에게는 위대한 師表의 상징이자 覺醒의 상징이었다.

각성이란 교육철학적으로, 그래서 안될 상태(Nicht-so-sein-sollens)에서 그래야 할 상태로의 이행이라는 완전히 뚜렷한 가치적인 음조를 지니는 말이다. 다시 말해 문연사는 日帝強占이라는 그래서 안될 상태아래 잠들어 있는 유림들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는, 하여 면암이 갈구했던 국권 회복의 그래야 할 상태로의 이행을 위해 유림의 의식을 깨어나도록 하여주는 상징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제동행 덕에 勉菴은 그의 스승인 화서와 어깨를 같이 하는 당대의 거유, 蘆沙 奇正鎭과도 인연을 갖게 되는데, 즉 蘆沙의 제주 초전인 安達三이 勉庵과 종유하는 동안 스승의 글을 여러 편 면암에게 보여줌으로써 면암과 노

67) 漢琴仙 緣是豈容易者耶 《勉菴集》答伯從兄 甲戌 十一月七日

사와의 인연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이 때 면암은 “이는 우리 화서 선생의旨訣과 대략 비슷하다”⁶⁸⁾하고 謄抄하여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노사의 글을 보관케 되는데 해배가 되자마자 長城에 들러 노사를 뵈는 등 조선말기 척사위정의 두 거유 화서와 노사와의 은혜로운 만남을 온몸으로 증언한다. 하여 그는 “내가 제주에 있을 때는 한라산을 보았고 장성을 지날 적에는 기정진을 뵈었다.”⁶⁹⁾고 토로케 되는데 이러한 은혜는 면암의 나이 43세, 기정진의 나이 78세 때였던 것이니 그러한 은혜로운 만남의 성사에는 안달삼이라는 제주문사가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즉 면암은 일찍부터 노사의 명성은 들었지만 학문을 구체적으로 접한 적이 없다가 제주도에서 만난 노사의 제자 안달삼을 통하여 노사의 글 수십 편을 읽어 보고는, 자기의 스승인 화서의 학설과 흡사하여 기뻐한 나머지 두권의 책으로 베껴서 가지고 가던 중, 장성을 지니며 노사를 직접 뵈고 승모의 정을 토로했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유배지에서 면암이 깊이 천착했던 宋時烈이나 兪樾를 만나 기정진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게 유배를 왔던 송시열에 대한 同病相憐의 깊은 애착도 있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송시열이나 기정진 혹은 면암의 스승인 이항로에게서 공통적으로 얻은 것은 春秋大義에 입각한 尊王攘夷의 義理思想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바가 없다. 특히 조선조 성리학의 정통이념인 의리사상을 면암이 제주유림에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했던 敎學의 구체적 내용이기도 했기에 면암이 견지했던 척사론의 내용적 골격인 의리사상의 연원들로서 송시열이나 기정진 혹은 李恒老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사실 李恒老나 奇正鑑 양측 모두가 宋時烈의 사숙제자들이고 보면 의리사상의 연원으로서 송시열에 대한 면암의 천착은 자연스럽고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丙子胡亂 이후 排淸崇明에 입각한 송시열의 의리사상이 당대의 至上命題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崇明論은 事大意識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68) 此與我華西先生旨訣六略相似 《勉菴集》年譜 乙亥 四月

69) 吾在濟州見漢學過長城誇奇丈席 《勉菴集》上奇麓沙正鑑 乙亥 九月十四日

내포하고 있는 데 비하여 면암의 斥洋·斥倭論은 事大의 전제를 벗어나 민족 자존의 의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리사상의 순수한 발휘라 할 수 있다. 즉 鄭夢周의 節義精神과 趙光祖의 道學思想 그리고 趙憲의 節義精神을 승계하는 송시열의 의리사상은 이항로나 기정진을 통해 면암에게 승계됨으로서 이른바 義理論의 正脈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면암은 이러한 의리사상의 승계노력을 통해 자신의 장래, 즉 의병운동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때의 긴장감은 「偶吟」이라는 유배 한시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이 시는 한편의 반성문이자 경고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면암의 척사론적 장래의 향방을 암시케 한다.

세월이 갈수록 성인 말씀 더 분명하니
 섬마을에도 글 읽는 소리 들려오네
 가여워라 저 수없이 날뛰는 무리들
 제 몸만 알고 나라근심 몰라주네⁷⁰⁾

이러한 勉菴 등의 영향으로 조선조 말기 제주 교학질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호계열의 학풍에 의해 주도될 수 있었는데 기호학풍과 격동기적 상황 전개에 대한 제주 유림들의 성찰적 반응이 연계되어 전체적인 제주 교학의 흐름은 척사위정류의 사상적 전개가 滿開될 수 있었다. 특히 면암이 유배된 시기는 사상적으로 그의 이론적 척사론이 動態化되는 과정의 길목이었기에 그러한 영향으로 제주 유림의 사상적 변화 또한 척상운동적 성격의 변모를 동시에 보여 준다. 뒷날 면암이 對馬島에서 순국하였다는 소식에 金錫允, 高士訓, 金萬石 등이 제주 의병운동을 주도하였던 예 등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乙未條約 이후 전국에서는 여러 의병활동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에 비해 뒤늦게 일어났던 제주에서의 의병사건은 泰仁에서 거병하여 전라도 지방을 휩쓸다가 淳昌에서 日軍에게 잡혀 대마도에 끌려가 분사한 면암의 순국과 기정진의 손자인 의병대장 奇宇萬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면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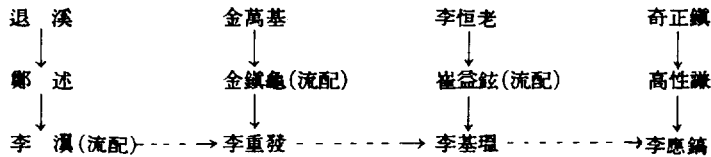
70) 聖言千載也分明／島戶猶聞讀字聲／可惜滔滔名利窟／每緣身計國憂輕／〈勉菴集〉詩

나 노사가 제주 유림에게 끼친 영향력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高士訓은 勉菴의 순국 소식에 金錫允과 의병활동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의 제자인 김만석을 장성에 보내 기우만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의병의 훈련을 맡게 될 盧尙玉이라는 인물을 천거받게 됨으로써 제주에서의 의병활동은 급진전을 보게 되고 募兵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그들의 운동은 실패하여 高士訓은 39세 金萬石은 31세의 나이로 죽어갔지만 勉菴이 지향했던 것처럼 그들도 大義에 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勉菴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勉菴과 종유자인 李基璵의 아들 李膺鎬가 주도하여 결성했던 集義契이다. 이기온의 아들 李膺鎬는 기정진의 제주지역 초전인 고성경의 재자로서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로 잡기 위하여 결사 항쟁을 맹약하는 일종의 秘密結社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때 李膺鎬를 비롯하여 金佐謙, 金炳路, 金炳龜, 金履中, 徐丙壽, 高錫九, 金錫翼, 姜哲鎬, 姜錫宗, 任成淑, 金基洙 등 12명의 유림이 뜻을 같이하게 된다. 이들의 학맥을 분류해 보면 제주 교학질서의 특징을 또한 일견할 수 있게 되는데 김병로는 勉菴→李基璵→金炳路의 학통이며 金佐謙은 유배인 金正喜의 종유자였다. 이들 가운데 勉菴의 학통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은 姜哲鎬, 金炳路 그리고 李膺鎬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열두 명 대부분이 勉菴의 영향력 밑에 있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李膺鎬의 척사논조는 남달리 강했는데 그의 이념 뒤에는 유배인 艮翁 李瀾으로부터 시작되는 李膺鎬의 家學的 背景이 자리하고 있었다. 李膺鎬의 가학적 배경은 제주의 교학활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좋은 예 가운데 하나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참고적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조 교학질서는 지역적인 이유와 더불어 자파 세력의 확립을 모색한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크게 영남학과와 기호학과로 大別하는 것이 대체적인 예인데 유파와 계보적 정통성을 이룬다는 견지에서 특정 학파나 학통에 대한 士林의 집착은 대단한 것이었다. 즉 각기 다른 계기 또는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나 혹은 산발적으로 사계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간의 특정 流派的 連帶意識은 매우 강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濟州島의 경우는 조선조 교학질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흐름을 보여 주는데 이를테면 영남학과나 기호학과내의 사람들이 특정 유배인의 신분으로 산발적, 간헐적으로 제주에 내도함에 따라 제주 유림들이 특정 유파와 계보적 정통성과는 상관없이 어느 학파나 학통의 분위기와도 쉽게 동화함으로써 해서 학문적 전통에 대한 일종의 混亂相을 노정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혼란상은 조선조의 제주도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는 교학적 위상으로서나 특정 학파의 영향력을 고집할 만한 학문적 自生力을 갖고 있을 만큼 그 수준이나 업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는 지도 모를 일이다.

李膺鎬의 가학적 전통은 바로 제주도의 특이한 교학 질서를 보여주는 한 예로서 李滄의 영남학과 분위기가 후기에 들어 자연스럽게 기호학파의 그것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물론 이 변모의 과정에는 어떤 유배인과 접촉을 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朝鮮末期에 들어서는 제주문사들이 직접 출륙하여 내륙의 거유들과 사계관계를 맺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그들의 출륙이 제주의 교학질서 형성에 유배인들과 함께 또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李應鎬의 경우가 그 두 가지 영향력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예이다. 즉 유배인으로서의 勉菴의 영향과 제주문사 고성겸의 출륙에 의한 노사와의 사계관계 맺음의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李應鎬의 논조는 조선말기 척사론의 거장인 勉菴과 기정진에게서 승계된 것으로서 그 강경함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게된다. 이응호의 「吊吳君大鉉斥洋教」라는 漢詩가 이 분위기를 잘 대변해 준다.

근년에 야소교가 남쪽으로 번져와서
 삼의사가 의병을 일으켜 모두다 베어냈다.
 우리의 도가 아닌 사특한 무리를 물리침을 명분으로 하였고
 옛 책에서 읽은 대로 많은 사람에게 맹세하여 병위를 떨쳤다.
 용수의 일에 생각이 미쳐 회민 이어짐이 일어나고
 홍수를 다스린 것과 같은 명예를 영원히 끝나 버렸으나
 그대들의 영혼은 오히려 우리 곁에 돌아와 있어
 대한제국의 조정에서 한라산 바라보기가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⁷¹⁾

天主教徒들과 제주도 民衆 사이의 충돌로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제주도 근대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인 흔히 李在守亂 또는 聖教亂으로 불리우는 1901년의 농민항쟁에 대한 詩로서 李應鎬는 이 사건이 프랑스 신부의 교회 권력과 봉세관의 위세를 利用하면서 온갖 횡포를 부린 教徒들의 소행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면서 이에 맞서 일어난 소위 吳大鉉, 姜遇伯, 李在守, 三義士는 정의에 입각하여 도민 대중의 民生과 人權을 싸움으로 지킨 제주도민의 자랑스런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會民 즉 義兵에 대한 강조는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李在守는 일찌기 趙光祖와 더불어 金宏弼의 門人으로서 스승의 소위 小學實踐主義와 同門의 道學思想에 동참하다가 中宗 15년(1520)에 己卯士禍로 인해 제주도 대정에 流配를 와 古阜李氏 濟州入島祖가 된 李世蕃의 後孫으로서 先代의 義理論에 입각한 理想主義를 家學的 傳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해방후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에 좌익계 거물로서 활약했던 本名이 李承珍이었던 金達三에게서도 찾아보게 된다.

19세기 말엽에 역사적 상황의 불안정과 급변하는 과정에서 조선조 후기의 유학자들은 유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역사적 변천에 저항하는 보수적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외세의 압력에 저항하는 민족 주

71) 耶教比年漸南海／三君起義盡誅除
 斥邪旌號非吾道／誓衆兵威讀古書
 思到龍溪堪作傳／抑如鴻水永終譽
 子與千載猶還魄／不愧韓朝望漢琴

체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적 입장에 따른 행동양식은 특징적으로 구별되고 있는데, 일제의 침략에 조선 정부가 무기력하게 붕괴되는 현실을 目睹하자 유림들이 보이는 입장으로서 이를테면 李膺鎬의 경우는 위의 시에서 보듯 의거하여 적을 토벌하고 물리치겠다는 舉義掃淸의 입장을 보여준다.

화석학과와 노사학과는 일차적으로 舉義掃淸하는 적극적 입장에서 의병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영향력이 李膺鎬에게 승계되었던 것이며 集義契의 결성이 그 승계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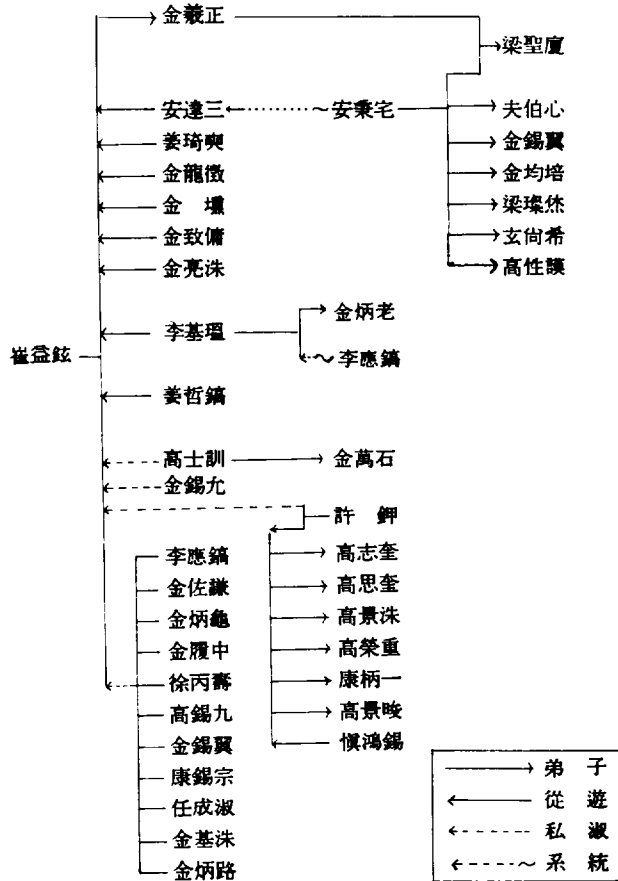
이러한 李膺鎬의 舉義掃淸하는 강경함은 그가 주도하여 결성한 집의계의 1차, 2차 선언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광무 9년(1905)에 선포된 집의계 1차 결성 선언문의 내용 가운데 “...우국충정과 예의도덕을 만천하에 밝혀 모든 백성이 감동하도록 행동할 것이며 왜놈을 단칼에 베어버릴 것을...”이라는 귀절에서 보듯 體制의 自強이라는 기조 위에 척사논의를 강력하게 제기한다. 융희 4년(1910)에 선포된 2차 선언문은 “...무력투쟁의 구국의거는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의 치욕을 씻고 국권을 회복하는데 있음이니 더한 대의가 있겠는가...”라는 귀절에서 보듯 1차 선언문보다 그 논조가 강경하며 이제 이론적 척사론의 단계를 넘어 무력투쟁의 확실한 결의를 보인다. 즉 외세의 도전에 의해 조성된 주체성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의 차원이 실천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勉菴으로부터 승계된 李膺鎬의 강경한 척사논조는 집의계의 활동을 통해 당대의 제주 유림에 넓게 공유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慎鴻錫 같은 제주 문사의 문집에 李膺鎬가 발문을 써 주었던 예나 혹은 李膺鎬와 교학관계가 돈독했던 許鉉과 같은 이가 李膺鎬의 종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李膺鎬의 가학적 배경인 勉菴의 교학적 영향력과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勉菴에 대한 碑文을 남긴 예 등이 그것을 반증한다.

勉菴의 제주 교학활동은 그 영향력의 授受關係의 측면에서 볼때 매우 포괄적이었음을 알게된다. 특히 勉菴이 유배서간에서 “하늘이 斯文에 재앙을 내린 지가 이미 오래니 더욱 무한한 근심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성리학(斯文)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의 그의 포괄적인 영향력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성리학의 사상사적 계보인 道統은 그 마지막 승계 유현으로서 勉菴을 거론하는데 이러한 당대 지성계의 위기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勉菴과 제주 유림과의 관계 맺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두고 우리는 '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만난다'(찾는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개괄적으로나마 은혜로운 만남의 양상을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을 통해 보면 우선 勉菴은 다른 여타의 유배인들에 비해 제주문사들과의 교류가 빈번했었으며 따라서 그 영향력의 전파도 풍성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림에서 보듯이 勉菴의 제주 초전은 김희정이 유일하고 따라서 초전(제1대 제자)으로서 양성하의 계보만이 正統的 흐름으로 눈에 띄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리학의 繼往開來의 전통의 승계라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볼 때 勉菴의 제주 교학활동의 폭이 여유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는 조선조 후기에 들어서게 되면 될수록 제주도의 교학질서가 왜 기호학과 학풍의 영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한데, 실제 조선후기의 제주 교학질서는 華西나 蘆沙, 艮齋의 기호 3대학과 학풍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勉菴의 제주 유배가 아니었다라면 화서학과 학풍은 어쩌면 승계가 안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勉庵의 스승인 華西 李恒老는 金叔滋, 金宗直 父子와 交流가 돈독했었으며 일찍이 成宗 1年(1470)에 제주목사로 도입하여 제주의 教學振興에 공이 컸던 老村 李約東의 11世孫으로서 이미 濟州島는 華西의 家學的 傳統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터이고 보면 勉菴의 제주와의 관련을 어쩌면 운명적이었는지도 모른다. 특히 李約東은 제주 三邑의 유생 교육문제를 걱정하여 제주목사는 文武 겸비한 인재를 보내어 民治와 教學을 겸행하여 인재 양성에 노력하도록 上啓하였고 書冊들도 회소하므로 四書三經을 보내주도록⁷²⁾ 하였는데 이처럼 그는 제주도에 대한 愛情이 남달랐으며 이로 미루어 보건대 勉菴의 濟州 教學活動이란 유배적 현실과의 대치감을 극복하기 위한 靜的이고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先代의 노력에 대한 승계의 意味를 띠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작업이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72) 濟州人願學者多然無師授不能成就 臣爲牧使治事之暇教以經書今者 三邑守宰文武交差以治以教則 人材亦出矣(成宗實錄) 成宗八年 閏三月 庚子

그들의 立地 자체는 流配地에서는 강도 높은 教學的 刺戟일 수 밖에는 없었으며 더우기 流配地 環境을 적극적으로 受容하고자 했던 流配人들의 影響力은 朝鮮朝 濟州教學秩序의 正脈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의 경우도 바로 이같은 例에 속하는 것이다.

性理學의 本質이 主體性의 회복(克己復禮)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朝鮮末期의 精神史는 '空論의 論爭'으로 마감할 수 밖에는 없었던 당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勉菴의 斥邪論은 당당한 저항의 이데올로기였으며 그의 濟州流配 期間 동안의 教學活動은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현실화된 場이었던 것이다.

參 考 文 獻

- 〈日省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朝鮮王朝實錄〉
〈韓國人名大辭典〉新丘文化社, 1983.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乙酉文化社, 1969.
〈韓國思想의 本質과 栗谷學〉栗谷思想研究員, 1984.
- 崔益鉉, 〈勉菴集〉
金 增, 〈海東名臣錄〉
朴世采, 〈東儒師友錄〉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黃 炫, 〈梅泉野錄〉
琴章泰, 高光植, 〈儒學近百年〉박영사, 1986.
金奉玉, 〈濟州通史〉濟州文化, 1987.
金泳謨, 〈朝鮮지배층 研究〉一朝閣, 1977.
劉明鍾, 〈韓國思想史〉以文社, 1981.
金宗業, 〈耽羅文化社〉조약돌, 1987.
李丙然, 〈朝鮮畿湖士林派研究〉一朝閣, 1984.
李丙燾, 〈韓國儒學史〉亞細亞文化社, 1987.
李瑄根, 〈韓國史〉乙酉文化社, 1961.
梁淳瑛, 〈朝鮮朝 流配文學研究〉建國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82.
濟州道教育史編纂委員會, 〈濟州教育社〉濟州道教育委員會, 1979.

Confucian scholar succeeding in the style of the Kiho academic party(畿湖學派).

Especially, his timely theory of Eiry(義理論; meaning justice) suggested the notion of chronological criticism to scholars in Cheju island. Furthermore, his theory played a role in reforming the academic mood of Cheju island towards the mood of the Kiho academic party, at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Choi Ik-hyun raised Kim Hi-jung(金義正) as his pupil on Cheju island. He also introduced his studies to scholars of Cheju, such as Lee Ung-ho(李膺鎬) relating these to them. He established relations with Ki Chung-jin(奇正鎭), the best scholar at that time among the people of Cheju island. Significantly, Lee Ung-ho(李膺鎬) and other people established 'Chipuigae'(集義契; meaning secret suicide squad) and resisted Japanese Imperialism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